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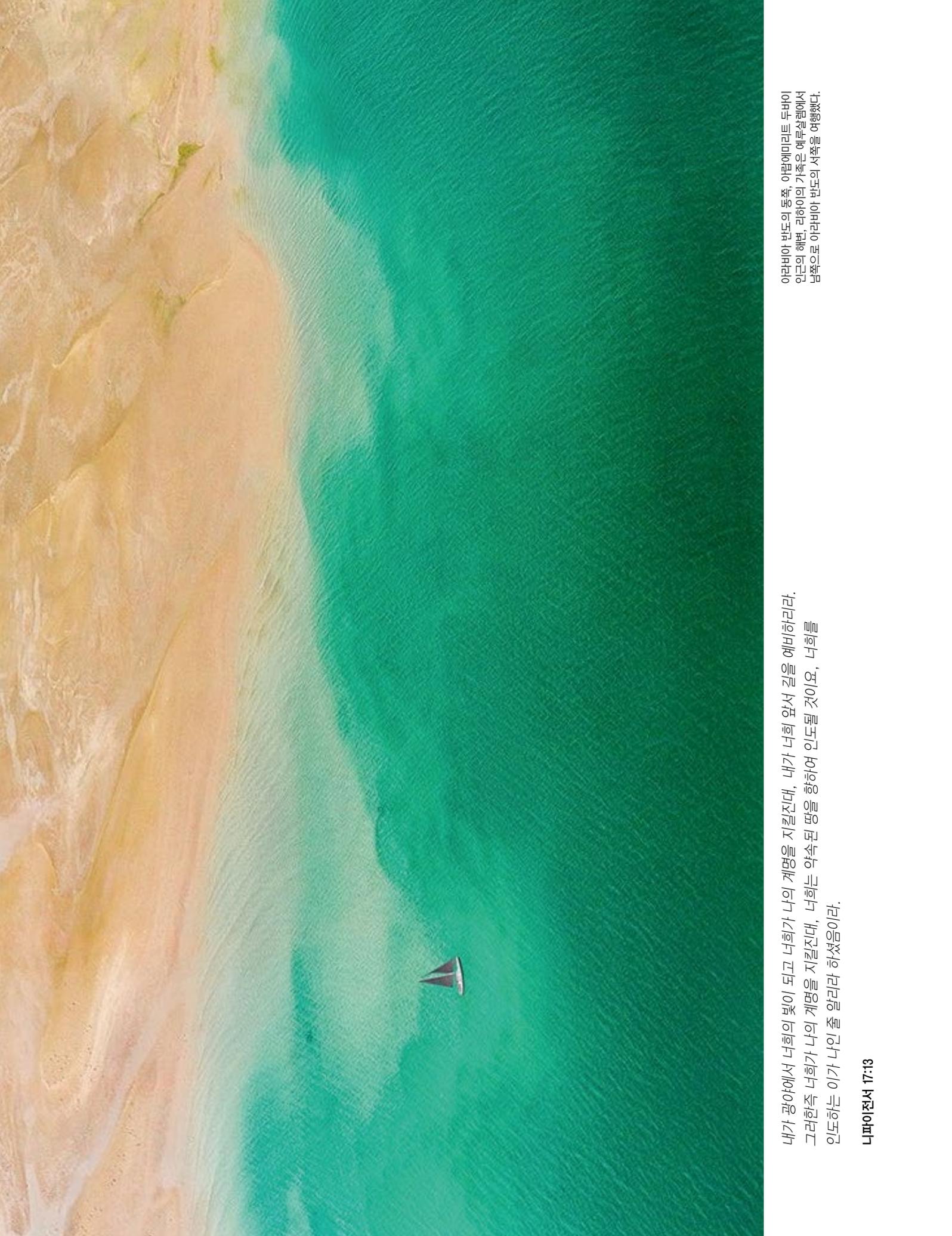


**하워드 더블유 헌터:
아버지, 변호사, 음악가,
선지자, 18쪽**

삶을 변화시키는 물문경의 힘,
24, 40, 56, 68, 72쪽

신뢰에 대한 지식을 갖다, 32쪽

인생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을 사용해 보세요, 62쪽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한즉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인도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하셨음이라.

니파이전서 17:13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아람에미리트 두바이 인근의 해변, 리하이의 가족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을 여행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특집 기사

- 18 하워드 더블유 헌터:
선지자, 나의 아버지
리처드 에이 헌터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후기성도
선지자*
- 24 물몬경이 지닌 개종의 힘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 28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에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가르침
얼리샤 스탠턴과 나탈리 캠벨
*월별 청소년 주제를 가족이 함께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 33 신화를 이해함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5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함을 믿는다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외설물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어
케리 헨스 젠슨
- 14 단상
우리가 원하던 기적은 아니었다
브리트니 킹
- 15 교회에서 봉사함
기도해 보십시오
타린 테일러
- 16 교회 소식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비유: 야간 고속 열차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표지

앞표지 : 손녀 캐슬린, 앤과 함께 있는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사진
앞표지 안쪽 사진: 아바 모신, iStockphoto/Thinkstock
뒤표지 안쪽 사진: 사진, 로버트 케이시

44



44 계시된 지상 생활의 현실
 폴 비 파이퍼 장로
 우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지상 생활을 위해 사탄의
 거짓말을 거부해야 한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어떤
 종류의 여행을 가
 보셨나요?



50 2016년 상호 항상 모임 주제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
 본부 청년 청년 회장

52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니파이후서
 31:20

53 포스터: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54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배움:
 폭넓게 공부함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56 모로나이,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한 공과
 루이자 호
 집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58 우리들 공간

60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닐 엘 앤더슨 장로

61 해답을 찾아서

62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축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데이비드 덕슨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71



66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어린이들:
 에티오피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에이미 제인 레빗

68 더 잘 읽게 될 거예요
 머리사 위디슨, 소냐 케냐야타
 몰몬경은 조셉이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조셉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켰다.

70 사도님의 대답: 어떻게 나만의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71 월포드의 금식 헌금
 치 흥 (섬) 원 장로
 월포드에게는 자기 돈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금식 헌금을
 내는 일에 신이 나 있었다.

72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께 대해 가르쳤어요.

74 몰몬경의 영웅:
 니파이는 순종했어요

75 나는 몰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광야에서의 여행

79 색칠하기: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2016년 1월호, 제53권, 제1호
리아호나 1326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트도르프
심사도 정회원: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테일 지 랜던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디

고문: 랜들 케이 베헤, 크레이그 에이 카든, 크리스토퍼 콜,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이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담당자: 메건 베르호프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뉘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라토, 로리 플라토,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트 건트, 살럿 라카발, 민디 앤 레빗,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슨 오터카프, 조슈아 케이 퍼거,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톨나, 톨 벤덴버그, 머리사 위다슨

편집자 인턴: 엘리사 케이 스탠턴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루스, 멘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데이트 지네스, 클린 윙글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어, 마크 더블유 로비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를 워그호스트

지식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코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넷, 케이트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디나스 지비, 지니 제이 넬슨, 가일 데이비 러퍼디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외국,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8호, 제53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장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70-4816-2500)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anuary 2016 Vol. 40, No. 1. 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에서 기초를 가르침”
28쪽: 이 기사는 여섯 가지 주제들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 1월의 청소년 주제인 신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정의 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법을 가족과 함께 다시 짚어 보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특별히 도움이 된 것은 어떤 것인지 토론해 본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 기사에 실린 복음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하는 데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보도록 권유할 수 있다.

“광야에서의 여행” 76쪽: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본다.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복도를 가로질러 실을 묶어 볼 수 있다. 가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알려 줄 한 사람을 제외하고 각 가족 구성원들은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다. 그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파이와 그의 가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주신 방법들에 대해 토론해 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iahona.magazine)에 가서 가정의 밤 제언과 일요일 공과 도움말,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감 어린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28
- 가정의 밤, 12, 28, 54
- 가족, 7, 12, 14
- 간증, 32, 42, 58, 66, 70
- 개종, 40
- 결혼, 18, 44
- 경전 공부, 12, 54, 56, 58, 70, 72, 75
- 구원의 계획, 28, 44
- 금식 헌금, 71
- 기도, 14, 15
- 기쁨, 4, 10
- 몰몬경, 12, 24, 40, 41, 42, 43, 66, 68, 72, 74, 75, 76
- 부름, 15
- 사랑, 4, 32, 50, 52, 60
- 선교 사업, 12, 58, 66
- 선지자, 18, 28
- 선택의지, 4, 44
- 성신, 4, 28, 32, 50, 52, 70, 72
- 소망, 50, 52, 60, 62
- 순종, 4, 32, 60, 62, 70, 74
- 신권, 28, 50
- 신앙, 50, 58, 60, 62, 80
- 신화, 28, 32
- 영생, 50, 52
- 예수 그리스도, 28, 32, 50, 52, 70
- 일, 44
- 자녀, 14, 15, 44
- 청소년, 50, 58
- 친절, 18, 71
- 태도, 10, 50
- 하나님 아버지, 32, 54, 70
- 하워드 더블유 헌터, 18
- 희생, 18, 7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그들에게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경에서 행복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실제로 행복한 시절을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또 그들은 얼마나 복되었던고! 이는 주께서 그들의 범사에 복을 주셨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복을 받아 번영하며 백십 년이 지나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그리스도로부터 첫째 세대가 지나갔고 온 땅에는 다툼이 없었더라.”(제4니파이 1:15~16, 18).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일합니다. 우리는 물론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복의 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우리는, 구주께서 방문하신 후의 니파이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 한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니파이인들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가졌던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성찬 기도문 안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심 어린 간구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구주를 믿는 우리 각자의 신앙과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도로, 그의 이름을 받들고, 그를 기억하며,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우리 마음에 증거하리라는 신앙을 행사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성신을 동반하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고 반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은 그 사랑의 느낌을 잃는 방법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기도하지 않거나, 완전한 십일조를 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것을 택했다고 합시다.

어떤 선택이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영이 우리 마음에서 물러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실과 더불어, 행복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라는 행복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나, 구도자, 혹은 친구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성신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엘마가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제안할만한 권유입니다.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

주를 믿으며, 영생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너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워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라.”(엘마 13:28~29)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감에 찬 여러분의 권유를 받아들여 계속해서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아 이어링 회장은 인생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이 메시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어링 회장이 언급한 것(예를 들어

기도하기, 일하기, 신앙을 행사하기, 그리고 진정한 의도로 결정하기)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행복해지는 길”로 더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행동 중에서 해 보고 싶은 것을 두세 가지 써 보도록 권유한다.



행복으로 이끄는 행동

아 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은 니파이와 레이맨, 그리고 레뮤엘의 예로부터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불평했으며, 계명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다.(니파이전서 2:12 참조)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고, 주님의 면전에서 끊어졌다.(니파이후서 5:20~24 참조) 니파이는 계명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고(니파이전서 3:7 참조), 그로 인해 그와 그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니파이후서 5:27).

여러분은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행과 불안으로 이끄는 나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모범은 그들의 선택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토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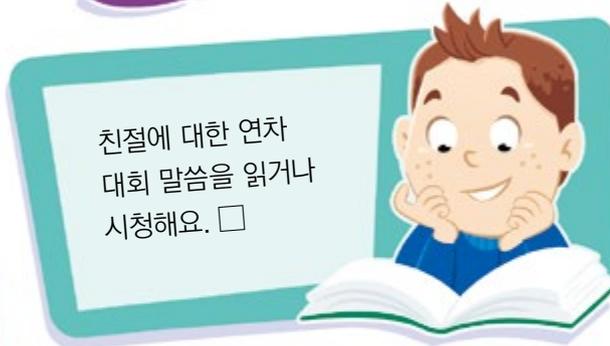
어린이

도전- 친절 베풀기

예 수님께서는 미대륙의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각각의 도전 활동을 할 때마다 표시해 보세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방긋 웃어 줘요.



친절에 대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해요.

슬퍼하는 사람을 안아 줘요.



가족들에게 초등학교 노래를 불러 줘요.



남들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가족과 관련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reliefsociety.lds.org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앙, 가족, 구제

생생한 이야기

“타이완 타오위안 스테이크 타오위안 제3와드의 리 메이 첸 호 자매는 선언문을 통해 가족 관계가 신앙, 인내, 사랑과 같은 신성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 따라 제 자신을 향상시키려 노력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⁴

선언문이 최초로 발표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며, 이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한 바바라 톰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잠시 저는 제가 미혼이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선언문이 저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게도 관련이 있어. 나도 가족 중 한 사람이잖아. 딸이면서, 언니이고, 이모이고, 사촌이고, 조카딸이고, 손녀인걸. ... 혼자만 남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⁵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¹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

보충 성구

모사이야서 8:16~17; 교리와 성약 1:38

주

1. 보니 엘 오스카슨,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4~15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캐롤 엠 스티븐스, “주님 가족 주셨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1쪽.
4. 니콜 세이모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0년의 눈부신 역사”,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27쪽.
5. 바바라 톰슨,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 148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고 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처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던 1995년의 여성 총회에 대해 본부 청년 회장이인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계시적인 선언문에 감사했고 그 명확성과 간결성, 진실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 가족에 대한 이 선언문은 세상의 철학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며,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약 20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이 이 선언문에 담긴 원리는 오늘날에도 참됨을 간증합니다.”¹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가족 선언문을 통해서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했었다]’는 것을 배웁니다.”² ...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며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³

우리는 부모가 그들의 집과 가정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족:

생각해 볼 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를 위한 기록인가?

2015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연차 대회를 시청하는 회원들 사진: 마리나 푼키지

신앙은 선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공중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연히 주어지거나 타고난 권리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전에 나오듯이 ‘실상[이며] ...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빛을 발산하며, 우리는 그 빛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신앙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법입니다. 신앙은 이생뿐 아니라 휘장 너머의 진보에도 중요한, 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앨 앤더슨 장로,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65쪽.

선지자의 약속



빛이 되십시오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면, 집안 식구든 친구든 직장 동료이든, 아니면 단순히 아는 사람이든,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타인의 삶에 빛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임을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주의 사랑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기 위해 그분의 면전을 떠나 한동안 이 지상에 살도록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한다면, 이 지상 생활이 끝난 후, 그분께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8쪽.

새로운 특별한 증인



“저는 구주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앨마가 바랐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나팔로 외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90쪽.



“저는 ...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느낌이었습니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복음의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 92쪽.



“제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흠모합니다. 저는 그분이 실제로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데일 지렌랜드 장로, “하나님의 눈으로”, 94쪽.

유사점 알아보기

성찬

때로는 여러 명의 연사들이 같은 복음 주제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찬에 관한 세 연사의 말씀입니다.

- “신앙으로 성찬을 취하면, 성신은 훨씬 자주, 또 강하게 닥쳐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우리의 동반자인 성신”, 104쪽.
-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부함으로써 인식일과 성찬식을 훨씬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과 간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가족을 보호할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 101쪽.
-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여쭙 가장 완벽한 시간은 성찬을 취할 때입니다. ... 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생각이 하늘을 향할 때, 주님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용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34쪽.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해답

각각의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 줍니다. 2015년 11월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이용하거나 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교회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몇몇 사람들에게 더 이로운가?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복음은 놀랍도록 이롭습니다!” 20쪽 참조.
- 우리가 교회에 확고하고 안전하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리와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엠 러셀 벨라드,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24쪽 참조.
- 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높은 직분을 채우고 있는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택함을 받고”, 128쪽 참조.
- 내가 이미 나 자신을 영적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108쪽 참조.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종종 경전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기운을 내라”는 권고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니파이후서 2:25에서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도전에 대해 무지하거나 어리숙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는 쾌활함을 “인류 전체뿐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우리 각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목적을 믿는 깊은 신뢰”라고 설명했다.¹ 시련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므로 닥쳐오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과 슬픔에 싸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리라고 하시며, 또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라고 격려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므로, “우리 후기 성도들은 가장 낙관적이고 가장 덜 비관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²

우리 모두는 때때로 슬퍼하고 낙담하지만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저는 구주를 믿는 신앙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까닭에, 행복은 결코 끝이 없으나 슬픔은 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라고 말씀했다.³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잠시 뿐”(교리와 성약 121:7)이라는 것을 알므로 기쁘게 살 수 있다.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기를 선택하면, 인생의 도전을 다루는 우리의 능력도 강화될 것이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덜 미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바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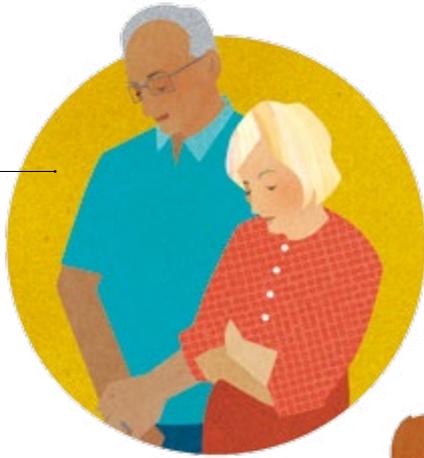
“삶의 무척 많은 부분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후에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기를 빕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월호, 4쪽.

주
1. Neal A. Maxwell, “But a Few Days” [address to CES religious educators, Sept. 10, 1982], 4.
2. Ezra Taft Benson, “Do Not Despair,” *Ensign*, Nov. 1974, 65.
3. 리차드 지 스코트,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26쪽.
4. Gordon B. Hinckley, “The Continuing Pursuit of Truth,” *Ensign*, Apr. 1986, 4.

경전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이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참되고 중만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교리와 성약 101:36 참조). 그에게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하신다.(시편 145:9 참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를 깨닫도록 노력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두는 일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드는 것처럼, 성약을 맺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니파이처럼 경전을 기뻐할 수 있다(니파이후서 4:15~16 참조).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은 고양된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서로의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서로의 미덕에 대해 말하[도록]” 그리고 “미덕과 노력을 더 관대하게 칭찬하[도록]”⁴ 우리를 격려했다.

외설물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어

케리 핸슨 젠슨

나는 경전의 한 구절에서, 어디서나 보이는 노골적인 이미지들을 피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열쇠를 찾았다.

아홉 살 난 아들과 교복을 사던 중에, 우리의 대화가 가벼운 잡담에서 좀 더 진지한 질문으로 바뀌었다. “엄마, 왜 저런 것을 온 가게 창문에 붙여 놓아야만 하는 거죠?”

그 애가 말한 “저런 것”은 점잖지 못한 사진들이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거의 모든 가게 창문에 붙어 있었다. 그런 사진들이 늘 거기에 있었지만, 나는 전에는 그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리 큰아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내 의식을 새롭게 일깨웠다. 나는 그 다음 몇 주 동안, 그런 이미지를 모든 곳, 곧 텔레비전에서, 식품점에서, 식당에서, 메일로 전송되는 광고에서 발견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떤 이미지들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나는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음 속에서 경각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외설물의 함정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연차 대회 때마다 외설물의 끔찍한 영향에 대한 경고를 들으며, 그 희생자에 대해 들어 왔다. 우리는 집에 있는 컴퓨터와 대중 매체에 모든 예방

조치들을 취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따로 격리되지 않으면, 더 큰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를, 원치 않는 이미지를 시청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길은 없어 보였다. 식품점을 순진하게 물끄러미 보는 우리 아들이 평생 외설물과 싸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나는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데 무력하고 취약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몰몬경을 읽다가 예기치 않게 니파이전서 15장에서 확신을 주는 말을 찾게 되었다. 니파이가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리하이의 생명나무의 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강물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니파이가 27절에 있는 말로 답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보신 물은 더러움이며, 그의 생각이 다른 일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었던지라 그가 그 물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셨다 하였느니라”(강조체 추가). 리하이의 마음은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가족에게 먹이기 위해 그들을 나무로 데려오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렇게 몰두했기 때문에 그는 그 더러움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것이 응답이었다! 시작은 부적절한 대중 매체를 우리 집에서 멀리하는 것부터였지만, 자녀를 꺾어낼 것에 맞설 최선의 방어는 결국 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경전에서 깨달은 이 경험 때문에 남편과 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더러움을 보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길을 고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1. 개인 경전 공부를 늘리고 주변의 “소음” 줄이기. 리하이처럼, 영의

외설물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면 교회 웹사이트 overcomingpornography.org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2015년 10월호 *리아호나*에 쓴 “외설물의 덫에서 벗어나기”라는 최근의 기사를 찾아본다.



속삭임을 듣고 복음 안에서 우리 가족이 닦을 내리는 데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나와 남편은 정기적으로 가족 개개인의 영적 필요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영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가족 경전 공부를 더 의미 있게 만들기. 매일 경전을 읽기 위해 가족을 함께 모으는 것만 해도 많은 노력이 들지만, 우리는 경전을 읽을 때 더 많이 토론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이 차가 많이 나므로, 어린 아이들과는 나중에 경전을 읽고, 더 큰

아이들과는 어린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방해될까 걱정하고 토론할 기회가 더 많은 이른 아침에 경전을 읽는다.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가 읽고 있는 경전과 연관해서 토론할, 그날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아침이 평온함과는 한참 거리가 멀지만, 그리고 모두를 함께 모으는 데 때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권고할 때 아이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3. 선교 사업 하기. 간증을 하면, 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됨을 간증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간증은 또 자라난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가족

행사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사들과 구도자들을 초대하여 복음 토론도 한다.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회원과 구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간증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고, 선교사들의 간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물문경에 대해 감사하며, 경전한 구절로 나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 가족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적적인 방법에 대해 감사한다. 경전은 참으로 두려움과 무력감을 힘과 평안으로 대체해 준다.

리하이의 마음은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가족에게 먹이기 위해 그들을 나무로 데려오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렇게 몰두했기 때문에 그는 그 더러움을 전혀 보지 못했다. ■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에 산다.

* 어떤 가족에게는 자녀들에게 대중 매체, 우리의 신체,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공과와 같이 다른 방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던 기적은 아니었다

브리트니 킹

우리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무릎이 저러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주신다.

몇 달 후면 나는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었고, 첫 아이를 가지길 희망했다. 내 남편도 나만큼이나 자녀를 가지길 간절히 바랐다.

1년 4개월, 수많은 임신 테스트와 다섯 번의 배란 테스트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 약을 먹으며 우울한 두 달을 보냈으며, 그 후 수없이 흘린 눈물에도 여전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자연 임신의 희망도 줄어들었다. 병원에서 불임 전문가를 소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를 거절했다. 무언가를 더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기에 휴식이 필요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간호사는 “기적이 일어나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이번의 사건이다. 큰 기적이 오기도 하고 작은 기적이 오기도 한다. 기대하지 않을 때 일어나기도 하고 간절히 필요할 때 찾아오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기적을 위해 무릎이 저러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주신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마치 침묵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잘못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무엇이며, 언제 그 축복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멀리 내다보신다. 그에 비해 우리는 눈 앞의 상황만을 본다. 그래서 우리도 바꾸었다.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갖기에 앞서, 즐겁게 어울려 지내는 다른 어린이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과 작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준 의사와 과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 시련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미어지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시련 속에 축복도 있었다. 만약 이 시련을 그대로 두었다면 영원히 그 축복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실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기로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축복은 확실해졌다.

우리는 서로 더욱 의지하고, 생각을 나누며 더 많이 사랑하였다.

주님을 더 신뢰했고, 더 많이 기도드렸다.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더 느꼈으며, 그분을 더 사랑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친구의 사랑을 느꼈다.

이 모든 축복을 깨닫고 나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며 감미로운 평화가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주었다.

바로 가족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시간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켜 나갈 그분의 평화가 필요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감싸 주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가져올 그분의 평화 말이다.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달라고 매달리던 기적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기도해 보십시오

타린 테일러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알려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부름을 주셨다.

나는 감독님께 사람을 잘못
택하셨다고 말했다.

“다른 집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저는
노래도 못해요.” 내가 말했다.

“테일러 자매님, 감독님이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자매님은 잘 해내실 겁니다.”

감독님은 부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부름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알려 달라고 하셨다.

“저는 여섯 살짜리, 세 살짜리
애들이다 어린 아기까지 키우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 애들만 돌봐도 하루가
벽찬데, 이제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을 가르치란 말씀이신가요?”

감독님이 대답하셨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 오후 나는 남편 마크에게 왜
그 부름이 적절치 못한지 설명하느라
애를 썼다. 내가 원하던 다정스런 엄마
역할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으로 몇

달째 괴로워하던 터였다.

한 주가 손살같이 지나갔지만
감독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멤돌았다. 마침내, 나는 일요일 아침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지만,
가슴에는 달콤한 평안이 가득 찼다. 이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자,
마음 속에 있던 불안감도 모두 사라졌다.

성찬식이 끝나고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자, 초등학교 회장님이 나를
소개시켜 주었고, 아이들은 환영 노래를
불러 주었다. 기대감에 들뜬 초등학교
아이들의 눈빛과 여섯 살 난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초등학교의 최고 음악 지도자가 되어
보리라 맘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노래를 배우고
수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걸어갈
때나 초등학교 음악을 틀어 들었다. 나는
여러 가지 교수법을 찾아보았고, 매주
포스터를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데 몇
시간이나 할애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부엌 식탁에서

노래 시간에 할 공과를 준비하면서
“경전의 힘”을 콧노래로 부르고 있었다.
여섯 살 난 아이는 부엌 조리대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고, 세 살 난
아이도 내 옆에서 종이를 자르고 있었다.
내가 후렴 부분을 콧노래로 부르자,
갑자기 두 아이들도 목소리를 드높여
노래를 했다.

경전의 힘으로 나쁜 일 없지.
경전의 힘, 이겨 내는 힘
경전의 힘! 매일 필요해
읽을 때마다 내게 생기는 힘.¹

바로 그 순간, 나는 부름이 내 기도
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님께 더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알려 달라 간구했었고, 그분께서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것처럼
나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부름을
주셨다.

감독님의 영감과 애정 어린 말씀에
감사드린다. “기도해 보십시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클라이브 롬니, “경전의 힘”, lds.org/callings/primary/sharing-time-music.

삽화: 케이티 페인

교회 소식

news.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위: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성전; 오른쪽 위에서부터: 수바 피지 성전, 멕시코시티 멕시코 성전, 코르도바 아르헨티나 성전



성전 사업의 성장

20 15년에 5개의 성전이 헌납되었고, 2개의 성전이 재헌납되었으며, 4개 성전의 기공식을 가졌다.

2015년에 헌납된 성전: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미국 유타의 페이스, 페루의 트루히요, 미국 인디애나의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멕시코의 티후아나.

2015년에 재헌납된 성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캐나다 퀘벡의 몬트리올 피지 수바 성전은 2016년 2월에 재헌납될 예정이다.

2015년에 기공식을 한 성전: 미국

와이오밍의 스타 벨리, 미국 유타의 시더시티, 칠레의 콘셉시온, 미국 애리조나의 투산

프랑크푸르트 및 프라이베르그 독일 성전은 작년에 수리로 인해 닫았고, 조단 리버 유타 성전은 2016년 2월 초에 수리를 위해 닫을 것이다. 미국 유타 프로보에 있는 프로보시티 센터 성전은 2016년 3월에 헌납될 것이다.

교회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전세계에 148개이며, 11개의 성전이 공사 중이고, 건축 예정인 14개의 성전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

종교의 자유를 지킴

십 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아르헨티나 외교자문회에 한 연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을 지지하고 행하는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자유의 보존은 필수적인 자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이를 지원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또한 교회, 유대교 회당, 그리고 이슬람교 사원에서 가르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에 대중이 부여하는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는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적 가르침을 국가에 이익이 되는 도덕적 행동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2015년 4월 23일에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외교자문회(CARI)에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후 기 성도들은 세상에 의를 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교리와 성약 58:27 참조)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의 몇 가지 주요한 사례들이다.

- 온두라스에서 600명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 의료 대표, 군인 대표와 함께 모기가 물리는 곳을 청소했다.
- 인도에서 후기 성도 청소년들이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국립 여자고등학교의 복도를 페인트 칠하고 교실을 청소했다.
- 라트비아에서 ‘물론 도움의 손길’ 조끼와 티셔츠를 입은 회원들이 지역 청소를 하여 쓰레기 봉투 70개를 수거하였다.
- 통가에서 후기 성도 회원들이 태풍 팜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카바사와 빵나무 열매를 모아 바누아투에 보냈다.
-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는 정부 직원과 함께 홍수의 피해자들에게 요리 기구와 냉동 기기를 제공하고, 오븐과 전동 믹서기를 사용하여 요리하는 방법을 여성들에게 가르쳤다.
- 솔로몬 제도에서 회원들은 약 2,000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
- 러시아에서 후기 성도들은 부활절 주말 지역 청소에 참여하였다.
- 터키에서 교회 회원들은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포함하는, 종교를 초월한 합창단에 가입하였다. ■



위에서부터 라트비아, 솔로몬 제도,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예루살렘 시장 니르 바르캇과 함께 있는 닐 엘 앤더슨 장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앤더슨 장로

십 이사도 정원희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예루살렘에서 국제 제보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시장 니르 바르캇을 만났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7년간 실시된 극동지역 연구에 대한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의 활동과 역사, 그리고 가족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교회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역사 대회는 이스라엘, 북미, 유럽, 그리고 세계의 곳곳에서 온 연구원과 가족 역사 전문가들을 포함한 수백여 명의 참가자의 이목을 끌었다. ■



하워드 더블유 헌터: 선지자, 나의 아버지



리처드 에이 헌터

나는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고 믿는다. 훌륭한 사람들은 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해내는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 중의 한 분이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위대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 특권을 가졌다. 그 가르침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씀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행동들과 그분이 누구였는지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변호사이자, 음악가이자, 돌보는 자, 그리고 선지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함이 넘치고,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내주고자 했던, 나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

가족을 위한 희생

내가 십대였을 때, 하루는 다락을 뒤지다가 우연히 먼지가 쌓인 상자 더미를 발견했다. 나는 클라리넷과 색소폰, 바이올린, 그리고 트럼펫을 찾았다. 아버지께 그것들에 대해 여쭙 보자,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연주하시던 악기들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미국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악단에 있었다. 그분은 음악을 깊이 사랑하고 음악을 만드는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 그 악단은 보이시에서 여러 주요 사회 행사에서 연주했고, 심지어 아시아로 항해하는 유람선에서도 연주했다. 1928년, 아버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남부로 이사를 하고 난 후, 그 악단은 재조직되었고, 아주 유명해졌다.

아버지는 1931년에 나의 어머니인 클라라 제프스와 결혼했다. 나의 부모님은 자녀를 갖고 싶었다. 그분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분이 원했던 의미 있는 가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은 모든 악기들을 케이스 안에 넣고 다락방에 올려놓았다. 가끔 있는 가족 행사를

친구들은 종종 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선지자의 아들로서 사는 것, 그리고 그런 범상치 않은 사람 밑에서 자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와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생각합니까?”이다.



물었다. 그분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단다.” 아버지는 그 악기들을 다시 연주할 수 없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가 했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위해 간직하고, 다시는 그것들을 연주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이 했던 큰 희생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1993년에 아버지는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던 집을 떠나 솔트레이크시티의 시내에 있는 그분의 사무실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그 악기들을 우연히 다시 발견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 악기들은 그분의 젊은 시절 동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기증하고 싶으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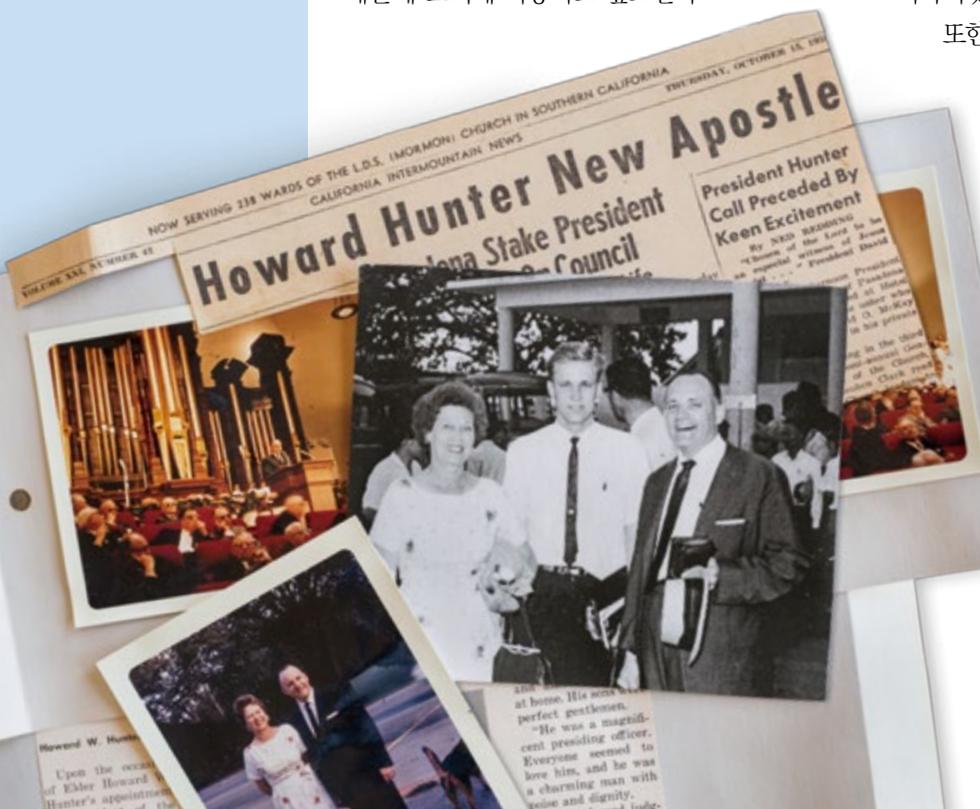
가족 역사에 대한 헌신을 발전시킴

나의 부모님이 결혼하신 후에, 아버지가 처음 받으셨던 부름 중 하나는 가족 역사 반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전념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법률 사무소 달력에는 로스앤젤레스 공립 도서관에 가서 계보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 거의 다 오후 시간에 표시돼 있었다. 아버지는 튼튼한 기록부에 묶인 1.8m짜리 가족 그룹 기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

또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우리의 친척들과 연결했다. 아버지는 수백 명의 친척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마다 편지를 보냈다. 그분은 사촌들, 삼촌들과 이모들을 방문하는 가족 휴가를 마련했다. 나는 이로부터 휴가를 보내는 즐거움을 희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배웠다.

법학 대학원에서 보여 준 강한 의지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아버지는 병원 대기실에서 교과서와 성경을 읽고 있었다.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두고 가장 중요한 단위이며, 따라서 인생에서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합니다.”

아버지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홍수 조절 구역의 변호사들과 일하면서 법학과 학생이 되겠다고 결심하셨다. 항상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면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직업 때문에, 수업과 학교 공부는 밤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나중에 내가 법학 대학원에 다닐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주무셨어요?”라고 여쭙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공부했고,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서너 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하셨다. 그렇게 지내셨던 시간이 오 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의지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아들들과 시간을 보냄

아버지는 늘 바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셨다. 내가 보이 스카우트였을 때, 우리 분대는 우리가 직접 만든 카약을 타고 미국 오리건 주에 있는 로그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는 캠핑이나, 맨땅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자원하셨다. 우리는 차고에서 2인용 카약을 만드느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강 위에 있었다. 나는 회전을 담당하는 피봇 위치인 앞자리에 앉았고, 아버지는 뒷자리에 앉으셨다. 우리는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는데, 곧 아주 위험한 폭포를 만났다.

카약의 앞 끝이 폭포 밑으로 떨어져 물에 깊이 빠지는 바람에 우리는 물속에 던져졌고, 카약은 뒤집어졌다. 나는 물에서 올라와 아버지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가 물속에서 불쑥 튀어나왔고, 우리는 카약을 제대로 한 후에, 그 위에 다시 올라탔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 물가에 닿기도 전에, 우리는 강에 휩쓸려 다음 급류를 타게 되었다. 소용돌이에 휘말려 빙빙 도느라 카약을 다시 바로잡을 시간이 없었고, 카약은 우리 뒤에 있던 긴 급류를 따라 쓸려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날 밤, 마침내 다른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캠프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아버지는 그분의 직업과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날의 사건과 직업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가는 대신,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배에 다시 올라탔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을 여행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그의 가족에게 가치를 둘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아내를 돌봄

1970년에 나의 어머니는 뇌로 공급되는 동맥이 끊기는 만성 질환을 진단받았다. 어머니는 유난히 밝고, 우아하며, 반짝이는 눈을 가진 매력적인 분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그것은 마치 좋은 친구를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주된 간병인이 되겠다고 하며 돕고 나서셨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작은 희생들을 하셨다. 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노래를 불러 주셨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은 점점 어렵고, 육체적인 일이 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힘든 일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의 건강도 우려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주치의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숙련된 요양 시설에서 종일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할 때 그 옆에 있었다. 만약 어머니에게 필요한 수준으로 아버지가 간호를 계속 해 준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으며, 그러면 어머니를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삶의 마지막 13개월 동안, 아버지는 교회 부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요양 시설에 있는 어머니를 매일 찾아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셨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스테이크 대회를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지쳤을 법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저는 ... 제게 주신 부름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며 제 인생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봉사에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²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보다 더 잘 돌보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희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부름을 위해 희생함

아버지는 사도로서의 부름을 절대적으로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느끼셨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그들은 일년 내내 휴가를 낼 수도 없다.

아버지에게 그분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건강보다도 더 중요했다. 아버지는 그분의 건강을 몸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겼다.(교리와 성약 84:33 참조) 한번은 아버지가 나에게 프랑스 파리의 지역 대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아버지의 주치의는 아버지의 몸에 무리가 가는 여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여행을 하려면 며칠에 걸쳐서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파리까지 한 번에 날아갔다. 나는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모임에서 에너지가 넘치게

사회를 보고, 접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켰다.

아버지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감에 따라, 그분은 종종 끔찍한 통증을 느끼셨다. 나는 사람의 몸이 그렇게 아픈 것도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런 몸을 가졌는데도 정말 기뻐서 소리 질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여쭙었다.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다. “그렇단다.” 그리고 약간의 농담을 더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전체 즐거리를 다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구나.”

친절함을 보임

아버지는 친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분은 친절한 사람이 소유한 도덕적인 위엄을 가지고 말했다. 그리고 이웃들, 가족, 친구, 고객, 동료, 그리고 교회 회원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존경받았다.

내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심하게 대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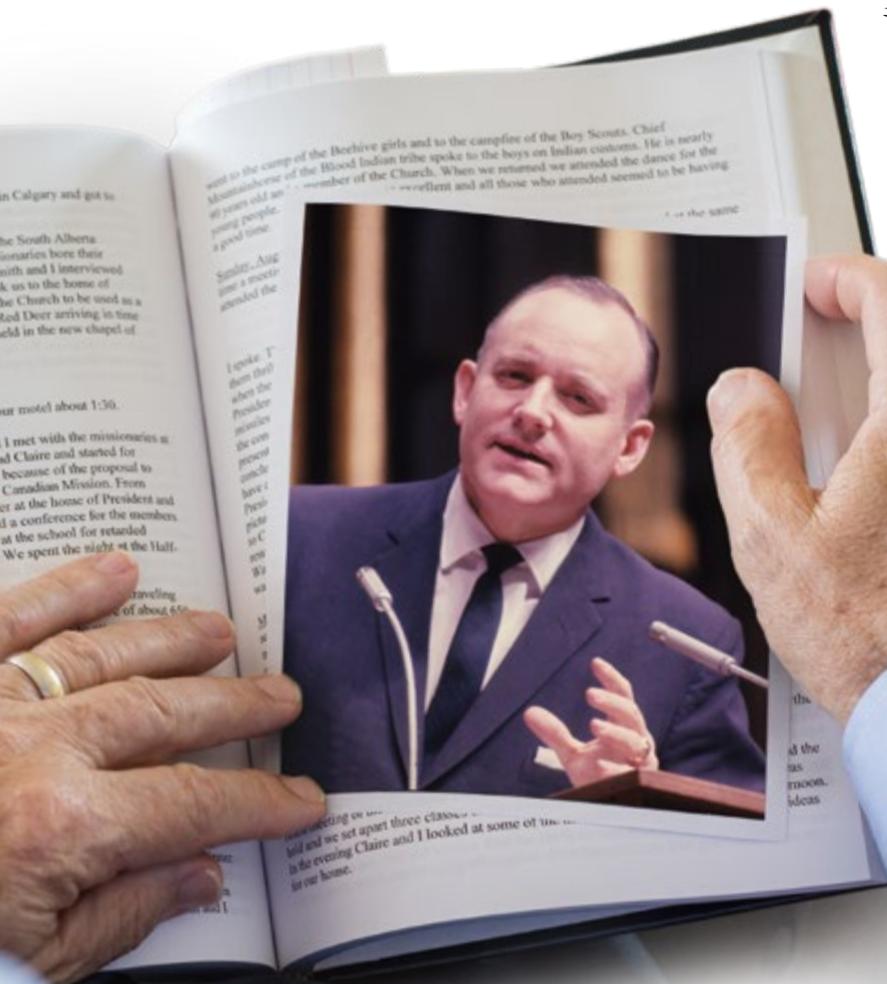
내가 혼이 날 만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그 상황들을 벌을 주는 데가 아닌, 가르치는 데에 사용했다.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그것은 나에게 잘 통했다.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적어도 기대치만큼은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는 교회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막 시작되던

때에 엘세레노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셨다.

그 와드의



회원들은 아버지가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인 친절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한다. 어느 일요일, 아버지가 신권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모두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임에 제시간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떤 제사를 위해 아버지는 그 제사의 침실에서 정원회 모임을 했던 것이었다.

내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은 큰 잠재력을 가진 보기 드문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걱정했다. 아버지는 그 친구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친구를 사무실로 부르셨다. 그 만남을 마치기 전에, 아버지는 그녀가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표를 건네주셨다.

아버지께서 패서디나 스테이크 회장이었을 때, 그 스테이크에 나의 또 다른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 친구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갔다. 학교를 소개하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친구는 끔찍한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었고, 미국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친구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녀를 만나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270마일(435km)을 운전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이러한 친절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나, 혹은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그런 것들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친절한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들을 통해 이러한 친절한 행동들 중 일부를 알게 되었다. 다음의 편지는 아버지가 받은 편지의 전형적인 예이다. “절망 가운데 저는 우리 큰딸에 대한 걱정을 썼습니다. ... 당신은 시간을 내주셨고, 방문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당신의 개인 전화 번호를 주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제 딸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에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전화와 개인적인 방문은 제 딸의 인생에서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는 그녀가 교회로 돌아온 것과, 성전에서 인봉받은 것, 그리고 그녀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에 대해 말해 주었다. “당신의 말씀(199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친절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난 후, 당신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행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당신이 수 년 동안 실천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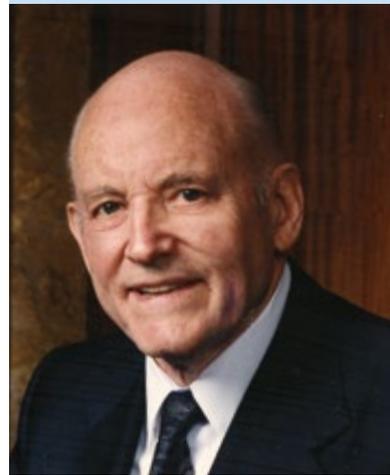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 아버지는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같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다. 나는 그러한 종류의 삶의 결과로 화평과 소망, 그리고 기쁨을 느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항상 쉽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개인적 삶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의 삶을 통해 그분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될 만한 것을 하신 일을 하나도 생각해 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부름받은 그분의 대표자라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지식은 그분을 알거나, 그분의 모범을 보거나, 또는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며 감동을 받은 것에서 온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은 됐다. 하지만 그 지식은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에 의한 자비로운 은사로서 나에게 주어졌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 (2015), 221쪽.
2.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 243쪽.
3.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 1쪽.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에, 특히 그분이 보여 주신 사랑과 소망, 동정심에 더 주의를 기울여 생활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³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몰몬경이 지닌

개종의 힘

우리가 우리 간증의 종석인 몰몬경이 참됨을 깨닫게 되면, 모든 복음 진리도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미노를 복잡한 모양으로 길게 세워 놓은 후에, 맨 앞의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연쇄 반응으로 그 뒤의 도미노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줄 끝까지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저는 도미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짜릿함을 맛보려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세우며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간증을 얻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그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과 같이, 먼저 몰몬경이 참됨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고, 복음을 회복한 조셉 스미스가 그분의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오늘날 이 지상에 권능과 권세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 메시지의 중심은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에 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¹



또한 조셉은 몰몬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한 간증의 중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몰몬경과 계시를 없애 버린다면, 우리의 종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²

복음 메시지의 진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몰몬경이 참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 년 전에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선교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몇 사람과 침례 접견을 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중, 어떤 자매님을 접견했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접견 중에 저는 자매님에게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핸드백을 열더니, 많이 읽어 닳고 닳은 종이 표지의 몰몬경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3니파이 27장을 펴고 여기가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읽어 보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과 영에 깊이

감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몰몬경의 영에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빨간 색연필을 들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은 저에게 자기 몰몬경을 보여 주었는데, 바로 제3니파이 27장이었습니다. 그 장의 거의 모든 단어에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믿는 이유입니다.” 하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이 참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침례를 받고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몰몬경에 대한 소개

몰몬경에 대한 소개는 복음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소개 부분은 “1981년판 몰몬경에 처음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그것은 책에

성신에게서 물문경이 참되다는 신성한 증거를 받으면,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관한 배경 정보와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물문경을 소개해 줍니다.”³

소개는 물문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물문경은 성경에 비교할 수 있는 기록한 경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대륙의 고대 주민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며 여기에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책이 “많은 고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 [금판에] 기록되었으며” 그 말씀은 “물문이라 이름하는 한 선지자에 의하여” 요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물문경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곧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푸신 일이다. 물문경에는 복음 교리가 나와 있고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 평화를 얻고 내세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물문경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입니다.

소개는 우리에게 “물문경을 읽고 거기에 실려 있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다음 이 책이 참된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이 책의 참됨과 신성함에 대한 증거를 얻을 것이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약속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성스러운 증거를 얻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야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다시 한 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 사실도 같은 권능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다음의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자 온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 조셉 스미스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보았다고 한 일을 보았으며, 들었다고 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하신 이 교회는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진리가 있고 권능과 권세가 있으며 의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선지자들을 통해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문경의 참됨을 깨우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문경에는 개종하게 하고 확신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문경에 대한 나의 간증

젊은 선교사로 프랑스에서 봉사하던 저는 물문경이 참된지 스스로 깨닫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참되기를 바랐습니다. 물문경이 참되다는 믿음으로 선교

사업까지 나온 터였으니까요. 그러나 매일같이 선교사로 일하며, 이 책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인간힘을 다해 짧은 프랑스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제 자신이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첫 겨울 내내, 우리가 살던 프랑스 남부의 작은 아파트는 춥고 눅눅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하루 일과 전후로 저는



우리가 물문경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입니다.



물문경을 읽고 공부하려고 담요와 외투를 두르고 웅크리곤 했습니다.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저도 알게 되리라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읽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빛도, 천사도, 음성도 없었습니다. 읽으면서 느껴지는 평안함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꾸준히 읽어 나가며 의미 있는 구절에 밑줄을 치고 물문경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기적은 조명 스위치처럼 순식간에 켜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습니다.⁴ 빛이 제 생각과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문경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읽었던 구절들이 다른 뜻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자면 그건 마치 제 생각에 불이 켜진 것만 같았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저는 물문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문경이 우리 시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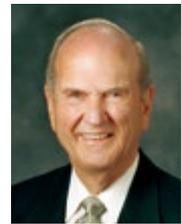
위해 기록되고 보존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로서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의 음성을 통해 “이 책은 사실이다, 참으로 그렇도다, 모두 참되도다.” 하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사십 년이 흐른 지금도 영은 제게 똑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문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매번 듣게 되는 말은 “이 책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이것은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업이라는 점을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즐기던 도미노 놀이가 맨 앞의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모두 뒤따라 쓰러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간증의 종석인 물문경이 참됨을 깨닫게 되면 복음의 진리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주

1. 조셉 스미스, 물문경에 대한 소개에서; *교회사*, 4:461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196쪽.
3. *물문경, 교사 교재* (2004년), 19쪽.
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0쪽 참조.



회복의 중심

“물문경은 회복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주님의 지시로 쓰이고, 보존되고, 전해졌습니다. 물문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7쪽.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에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가르침

엘리샤 스탠턴과 나탈리 캠벨

가정의 밤 시간에 모여 앉아, 어머니가 두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기 시작한다. “너희는 언제 영의 인도를 느끼니?”

그녀의 열일곱 살짜리 딸은 “저는 이미 이번 달에 영에 대한 공과를 세 번이나 들었어요.”라고 불평한다.

“좋아. 그럼 네가 많이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린다.

드디어, 그들의 열네 살짜리 아들이 그날 학교에서의 경험을 나눈다.

“그래.” 그의 어머니가 대답한다.

“그 말을 들으니 니파이가 라반의 판을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몰랐을 때 영을 따랐던 것이 생각나는구나.”

딸은 버스에서 한 외로운 여자아이와 말을 나누어야 한다는 느낌을 어떻게 따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결정을 칭찬하며 그것을 그의 직장에서의 경험과 연관시킨다.

그들은 “성령 인도하시어”(찬송가 73장)를 부르면서 토론을 마친다.

교리에 대해 경험을 나누는 간단한 교수법이 이 가족의 가정의 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기사는 사람들이 월별로 짜인 일요일 청소년 교육 과정의 원리들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실생활의 예로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교리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예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 영감을 구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일요일 과정(와서 나를 따르라)는 매달마다 기본적인 복음 교리를 가르친다. 여기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그러한 교리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월

신회

신회의 구성원(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은 독립된 세 개체이지만 목적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이다.

한 청년이 신회에 대해 배우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그리고 성신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조화롭게 그분들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감사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신회는 정의되지 않거나,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며, 저를 알아 주는 신성한 개체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일할 하는 것에 관해 신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혹은 “신회의 구성원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0:30과

교리와 성약

50:43을 비교해

보는 것은

좋은 토론을

유도하고

단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월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나는 누구인가?”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이 사람들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 준다. 우리의 질문을 묻고, 답을 찾는 것은,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대해 배우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은 그의 경전 공부를 다음과 같이 물음으로써 시작했다.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전세에서 가졌던 특성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내가 다음 생애에 갖기를 소망하는 특성과는?” 그는 경전에서 찾아가며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가르치는 데에 사용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에 계획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가르침

교회는 여러분이 이러한 교리적인 원리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경전 구절들과 연차 대회 말씀들 외에도 다음을 고려해 본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lds.org/manual/teachings-of-presidents를 방문한다.

신앙에 충실함 lds.org/manual/home-and-family를 방문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와 그와 관련된 자료들 lds.org/manual/missionary를 방문한다.

음악 복음의 원리들을 보충해 주는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에 있는 음악들 lds.org/music을 방문한다.

동영상 교회 동영상들은 관심을 끌 수 있고, 가정에서 복음에 관련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lds.org/media-library를 방문한다.

미술품 복음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들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면 경전 구절에 대한 통찰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lds.org/media-library를 방문한다.



3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구주의 진실한 소망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느껴 본 적이 있고, 실수를 해 보았으며, 힘을 요구받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속죄를 더 잘 이해하고 적용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 청년 고문은 반원들이 구주의 속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사용했다.

한 청년이 경험을 나누었다:

“우리는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동영상, LDS.org)를 보고 있었어요. 슬픈 플루트 연주와 함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활절 절기에 큰 위안이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토록 길고 외로운 길을 온전히 홀로 걸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에게 구주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스러워 했었어요. 하지만 영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분의 속죄에 대한 소망을 통해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은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분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신의 인도와 함께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경전 구절이나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과 같은 사도들의 간증을 토론하도록 인도될 수 있다. “여러분이 속죄의 치유 능력, 강화하는 능력, 또는 구속의 능력을 느껴 본 것은 언제였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토론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4월

경륜의 시대, 배도, 회복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대배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과 신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복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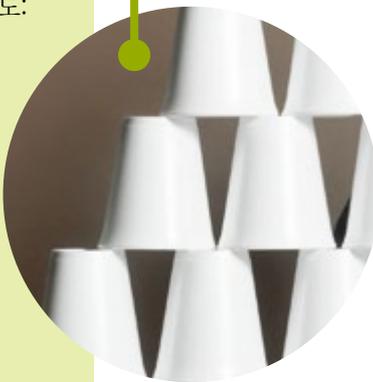
다음의 실물 공과는 어느 선교사들이 구도자에게 대배도와 회복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도와 주었다.

“저와 제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하면서, 참된 교회의 요소들로 라벨을 붙인 플라스틱 컵들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를 나타내는 컵들을 제거하면서 대배도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그 피라미드가 무너져요. 우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한 복음의 회복을 설명할 때,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본래 조직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 피라미드를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이 이해했어요.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했을 때, 마침내 그에게도 회복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경륜의 시대, 대배도, 그리고 회복의 주기를 표현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경전 구절을 읽어 보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여러분만의 방법대로 표현해 내기 위해 영의 속삭임을 따를 수 있다.(예를 들어, 아모스서 8:11~12; 니파이전서 13장; 교리와 성약 136:36~38; 모세서 5:55~59를 참조한다.)



5월

선지자와 계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선지자들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보통 실물이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들에 복음원리들을 비유할 때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한 청년은 한 비유가 어떻게 계시를 인식하는 것을 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는 현대의 선지자를 통해 계시에 대해 배웠어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빛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때때로 계시는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것처럼 갑작스러우면서 명확하게 와요. 보통의 경우에는 점점 밝아지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차적으로 와요.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흔한 경우, 계시는 안개 낀 날의 빛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흐린 날씨 속에서 몇 발자국을 나아가기에 충분한 만큼 볼 수 있는 ... 충분한 빛이 있습니다.’(‘빛의 패턴(Patterns of Light): 계시의 영’ [동영상], LDS.org) 이 비유는 간단하면서도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시는 제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 유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유, 비유, 그리고 상징들을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들일 때, 우리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치는 방법들은 우리가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6월

신권과 신권 열쇠

신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권의 의무, 직분, 그리고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퀴즈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다음의 질문들 중의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대의 선지자들의 가르침들과 경전 구절에서 답을 찾으도록 한다.

- 아론 신권의 직분과 의무는 무엇인가?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과 의무는 무엇인가?
- 신권의 열쇠들은 무엇인가? 누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 열쇠들이 필요한가?
- 신권 직분, 권세, 그리고 권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어떻게 신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축복하는가?

복음 원리(2009)와 신앙에 충실함과 같은 참고 서적들과 복음 참고 자료(2004), 그리고 교리와 성약 13장, 20장, 그리고 107장과 같은 경전 구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질문인, “어떻게 신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축복하는가?”에 대한 답은 경전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에 산다.



이 기사의 제2부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언들은 올해 후반에 게재될 것이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회를 이해함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신성하신 존재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께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들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닮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23일 월요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린 신입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 “신회”에서 발췌함.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숙해지시기를 바란다.”²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 완전함과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위대한 성품”³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선지자가 제기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확대시켜, 우리와 선교사들, 회원들, 그리고 구도자들도 신회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개별적인 완전함과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지니신 위대한 성품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구절이,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회가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심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다른 진리 중 어떤 것을 토론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신성하신 존재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께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들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닮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우리는 그들을 인간의 교회에 들어오도록, 곧 그가 조셉 스미스든, 브리검 영이든, 혹은 토마스 에스 몬슨이든지 간에,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처럼 존경하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족들이나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이 있는 교회에 들어오도록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며, 그 일은 이 목적지까지 그들을 인도한 성신의 영향과 더불어, 그분의 아들의 성역, 속죄,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사업에 임할 때, 우리는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신회의 이런 탁월하심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장 높은 곳에

베냐민 왕이 그의 회중에게 준 가르침의 영향은 우리가 “온 천하”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개종자들에게 강조하는, 참된 성장에 대해 경전에서 설명하는 완벽한 정의입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베냐민 왕이 가르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섬기는 이 신성하신 존재들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낮은 분들이 아니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결코 멀리(모사이야서 5:13 참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베냐민 왕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백성들은 “큰 변화”를 이루어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였고, “기꺼이 … 성약을 맺어 [그들의] 남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가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모사이야서 5:2, 5).

그것이야말로 베냐민 왕이 그의 회중을 가르친 결과였으며, 또한 “온 천하”(마가복음 16:15)에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개종자들에게 강조하는, 즉 참된 성장을 설명하는 경전상의 완벽한 정의입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구원 사업인 선교 사업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와 사람들로 이루어진, 점점 더 넓어지는 세상으로 던지는 그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종” 물고기를 모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3:47). 우리가 넓은 경계 안에 든 그런 “물고기” 중 다수는 하나님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어떤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 혹은 왜 그의 이름이 천하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인지(사도행전 4:12 참조)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신이 누구인지, 또는 신회의 이분이 왜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았는지]”(교리와 성약 50:14) 모릅니다.

신회에 관한 지식

물론 이렇게 모인 각종 물고기들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만일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구원을 찾으려면, 그 일은 반드시 신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실한 구원의 예배는 … 신회에 관한 진실을 아는 사람들과, [어떤 형제님이 이름 붙인 것처럼] 저 영원한 회중단의 각 구성원과 인간이 맺어야만 하는 진정한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됩니다.”⁴⁴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1915~1985)는, 비록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루시퍼는 그런 교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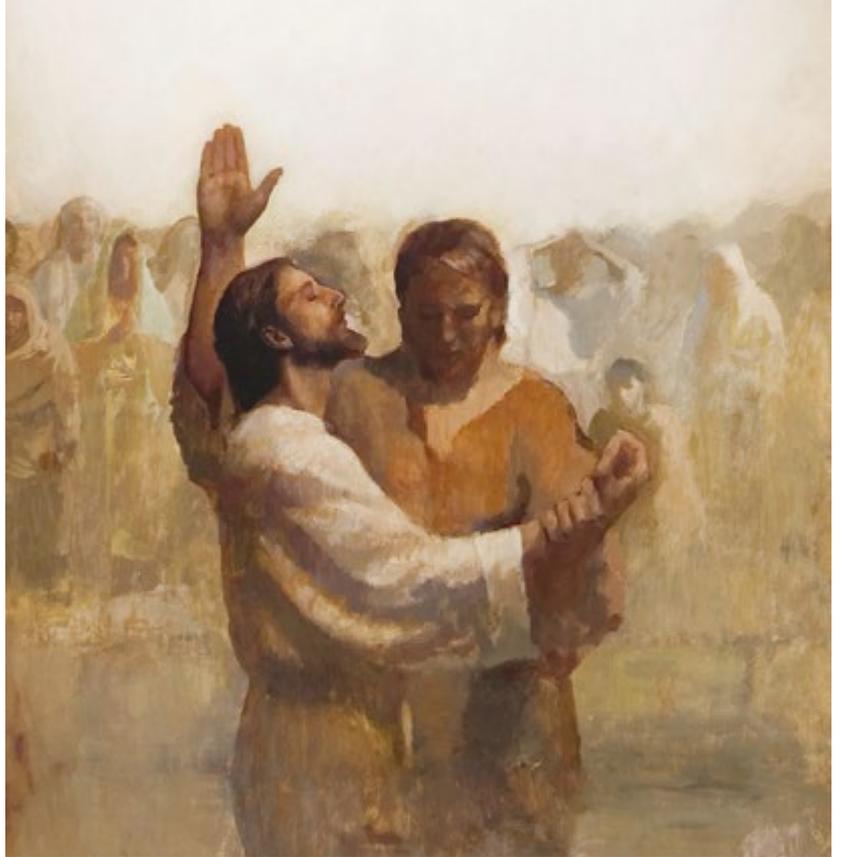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거짓된 교리, 특히 신화나 그 구성원에 대해 거짓되거나 어리석은 견해를 ... 믿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악마는 다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 신화에 대해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고, 그들 중 어느 한 분에 관하여서라도 거짓된 느낌들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⁵

그러므로 어떤 구도자도 참된 간증, 참된 개종, 또 만일 그가 하나님과 최소한 얼마간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참된 경험을 맛보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우리가 각 개종자에게서 찾고 있는 참된 성장이라고 부르는 그것 없이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참된 경험은, 그분이 정말로 존재하시는 실제 인물이며, 말 그대로 말하고 보고 느끼는 삶과 뼈를 가지신 아버지로, 그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며,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의 교회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옵니다. 그러므로 구도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것과,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마음을 쓰는 것만큼이나 다정하게 그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공기 중의 안개 같은 존재나, 철학에서 말하는 ‘제1원인’이라는 모호한 존재나, 또는 이신론에서 믿듯 세상의 창조자이지만 인간사에 관여치 않는 그러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실제 모습, 곧 자비와 연민이 가득하신 아버지 그대로 이해되어야만 하며, 그분의 자녀 하나하나의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시 그분의 앞에 설 것이며, 그런 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구도자 중에, 지금 현대 기독교



안팎을 막론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1과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단순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이 그 공과에서 첫 번째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본성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들이 토론의 출발점에서 구도자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적절한 이해를 심어 줄 수 있다면, 이후에 가르칠 토론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메시지

마찬가지로, 장로, 자매 선교사, 그리고 구도자는 똑같이, 아버지에게서 내려와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사명과 메시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 몸소 필멸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실로, 그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 필멸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신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어둠을
내어쫓고, 위험과
거짓에 주의하도록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은 또한 약속의
성령이며, 성약과
의식을 확인하고
인증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의 축복을
영생에 인봉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유일한 길이시자, 온전한 진리이시며,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마태복음 17:5)라고 전적으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 가족 중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며, 그분이 우리를 육체적으로는 사망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면전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으로서 그의 속죄를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달리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일 구속을 받으려면, 세상은 필히 무릎을 꿇고, 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히브리서 6:1; 요한2서 1:9; 니파이후서 31:2, 21; 32:6; 야고보서 7:2, 6)를 경전에서 선포된 대로, 그리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과에서 요약된 대로 신앙과 열성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멀리 던져진 그물에 든 우리의 물고기들은, 그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관하여 하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할 때, 그들과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분이 바로 신회의 한 분이신 성신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도자들을 진리로 이끌고 그들이 그 진리를 마주할 때, 그것의 참됨을 증거해 주실 신회의 구성원이 바로 성신입니다. 구도자들은 토론 중에 영이 증거하면 그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선교사들은 반드시 개종의 과정에서 성신의 신성한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과 항상 영이 함께하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것에 성임되었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임되었느니라. ...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13~14, 22)

만일 우리가 신성한 분에 대한 가르침을 빠뜨린다면 선교사들을 위해서나 그들의 구도자를 위해서나 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하늘의 지도자들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기 전에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부수적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종자의 간증에 처음으로 난 중요한 썩이 성령의 양육하는 힘을 통하여 강하게 생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전에는, 침례와 새로운 개종자의 목표를 향해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혼란

후기에 주어진 계시에서는, 이러한 신성하신 존재들의 분명한 본질에 관하여,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교리와 성약 130:22)라고 가르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근본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거의 2천 년 동안 이어진 기독교의 역사는 이 점에 관하여 심각한 혼동과 치명적인 오류의 씨를 뿌렸습니다. 종교의 교리는 여러 번 진화하고 반복되면서 참된 교리가 가진 간결함과 명백함을 심각하게 왜곡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을, 추상적이고, 절대적이며, 초월적이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같은 몸에 존재하고, 영원히 공존하는, 알 수 없는

존재로서, 몸도 자질도 감정도 없이, 시공을 벗어난 존재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은 교리에서, 세 구성원들은 모두 분리된 인격체들이지만, 종종 “삼위일체의 신비”로 언급되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뚜렷이 구별되는 세 인격체이지만, 셋이 아닌 단 하나의 신입니다. 세 인격체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신은 이해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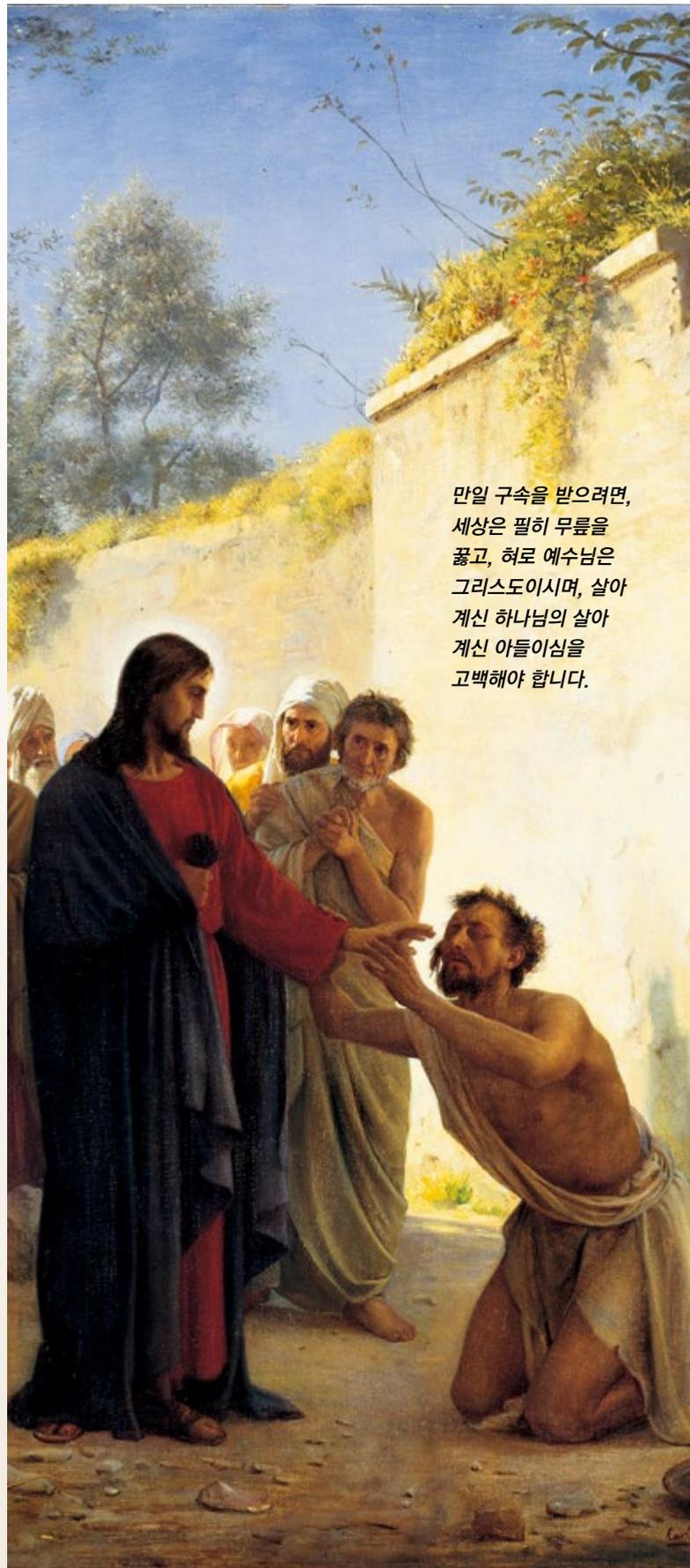
우리는 최소한 신성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큼은 우리 비평가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런 혼란스러운 정의를 교회에 내려지자, 4세기의 한 성직자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은 전혀 놀라울 게 없습니다. “오, 슬프도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내게서 빼앗아 갔으니 … 이제 누구를 흠모하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⁷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대상을, 어떻게 믿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아는 것)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는 어떻습니까?(요한복음 17:3, 강조체 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종교의 교리를 비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대할 때 그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교리를 존중합니다.(그것 역시 우리가 믿는 신앙개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 분야에서 권위 있는 *Harper's Bible Dictionary*(하퍼 성서 사전)를 보면, “4~5세기경 교회 대평의회에서 정의한 삼위일체의 공식 교리가 [신약]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⁸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4~5세기 경의 신화에 관한 견해는 지지하지 않으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초기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솔직히 아주 위안이 됩니다.⁹ 우리는 니케아 종교 회의의 교리를 따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화의 단일성

그러나, 저는 이제 그분들의 특성에 대한 요점을 말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신화가 참으로



만일 구속을 받으려면,
세상은 필히 무릎을
꿇고, 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인지 강조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이유 중의 일부는, 신화의 인격체들을 개별적으로는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면에서, 그분들이 하나임을 충분히 자주 인정하고 주장함으로써 그 뜻을 이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비판을 받아 왔고, 후기 성도의 입장을 이해받는 데 필요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니파이후서 31장에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구절은 이러한 선언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한 하나님이지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니파이후서 31:21).

우리는 모두 요한복음 17장에서 구주의 장엄한 중보 기도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지상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선언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입니다. 특히나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이 언젠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표현된 ... 가장 위대한 기도”¹⁰라고 부르셨던 것을 고려해서, 자주 그것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사도의 증언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원한 회장단”을 구성하는 이 신성한 존재들에 대한 간증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신의 위대한 역할 중의 두 가지는 간증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신의 영으로 성신에 대해 간증합니다. 성신은 교사이며, 보혜사이고, 개인적인 계시의 전달자임을 간증합니다. 성찬 기도문(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에 포함된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들 중의 하나이므로, 성신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는 것은 특별한 축복임을 간증합니다.

성신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어둠을 내어쫓고, 위험과 거짓을 주의하도록 경고받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성신은 또한 약속의 성령이며, 성약과 의식을 확인하고 인증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의 축복을 영생에 인봉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한다면, 신화의 한 분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가서,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저는 성신의 은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 그리고 아담부터 세상의 끝까지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려 몸값을 지불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저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초이며, 중심 메시지임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며,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분이 위대한 여호와, 구원의 자존자,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분 안에는 충만함이 있었으며, 그분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 사시다가 흠도 티도 없이, 완벽히 죄 없는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의미를 지닌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곧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거룩한 신권이 그의 이름을 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일 천 년을 산다 하더라도, 저는 온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 중의 하나로 제 자신이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도무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¹¹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엘로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람이시며, 그 자비와 선하심, 사랑과 연민은 그분이 지니신 영원하신 속성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 오셨으며, 그런 의미에서(거룩한) 사람의 아들, 곧 인자라고 불리셨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로마서 1:1, 또한 2~3절도 참조)임을 간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과거에도 만물의 창조주이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시며, 여호와와 다른 하늘의 존재들을 통하여 창조를 이루려 일하셨으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창조주라는 칭호를 나누어 가지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섬겨야 함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으며, 아버지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아버지를 통하여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과 그의



자녀들을 것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뛰어난 자녀이자, 그분의 완전한 자녀이신,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 했음을 가장 엄숙하게 간증합니다.(요한복음 3:36; 6:47; 히라맨서 14:8 참조).

침례부터 성전 인봉까지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구원의 의식들은 모두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저는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신성하신 존재들을 깊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305.
2.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305.
3. *Lectures on Faith* (1985), 38, 42.
4. Bruce R. McConkie,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Mar. 2, 1982), 1, speeches.byu.edu.
5. Bruce R. McConkie,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1-2.
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31.
7. In Owen Chadwick, ed., *Western Asceticism* (1958), 235.
8. Paul J. Achtemeier, ed., *Harper’s Bible Dictionary* (1985), 1099.
9. 이 문제와 관련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을 보려면, Stephen E. Robinson, *Are Mormons Christians?* (1991), 71-89를 참조한다. 또한 Robert L. Millet, *Getting at the Truth: Responding to Difficult Questions about LDS Beliefs* (2004), 106-22 참조.
10.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Oct. 1967, 5.
11.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으며,
아버지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아버지를 통하여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나는 수 년 전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항에서 서점 진열대에 있는 어떤 책을 보게 되었다.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나는 타락과 혼란으로 물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 받아들여질지 의구심을 품은 채, 그 책에 대해 생각하며 주말을 보냈다.

결국 나는 궁금증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책을 사려고 서점으로 다시 갔다. 하지만 그 곳에서는 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가게 점원에게 그 책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진열대에 전시된 다른 책은 모두 도서 목록에 있는데, 그 책은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나는 약국 안에서, 계산대에 펼쳐져 있는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다. 펼쳐진 부분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다 끝내는 병어리가 되고 만 코리호어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읽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당시에 신성한 인도를 갈망하던 참이었다. 어느 날,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참된 길을 알려 달라고 열렬하게 기도를 드렸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아파서 다시 그 약국에 가게 되었다. 약국을 떠나서려는데, 이름표를 달고 있는 세 명의 젊은 미국인들이 들어섰다.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바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브라질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 나도 가르칠 수 있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고, 우리는 약속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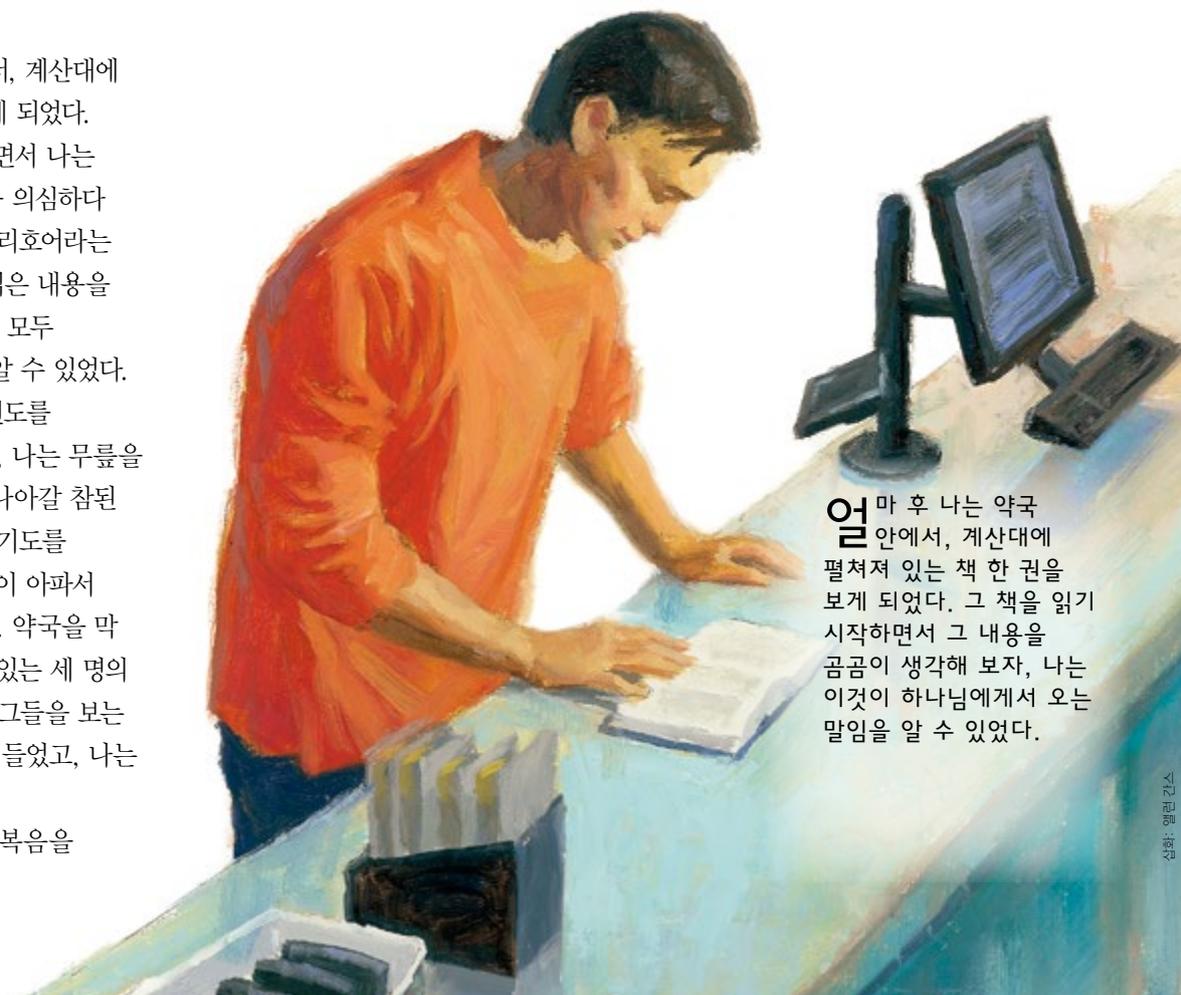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을 때, 나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은 내게 책을 한 권 주었다. 놀랍게도 그 책은 몰몬경이었다. 내가 진열대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책이었다. 나는 또다시 마음이 혼 혼해졌고, 너무 기뻐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선교사들은 그 책의 기원을 설명해 주며 그 내용이 참된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 보라고 했다. 내게는 이미 이

책의 신성함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 이미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지 않았는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도 나는 꼼꼼하게 책을 살펴보았다. 제3니파이 17장을 읽으면서, 나는 이 책에 신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말이다.

내 간증의 토대는 몰몬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이 책은 나를 변화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호세 에바닐도 마티아스 페르난데스, 브라질 상파울루



얼마 후 나는 약국 안에서, 계산대에 펼쳐져 있는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 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음미할 수 있을 터였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 뒤의 따뜻한
햇빛 같았다.

어둠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음

몇 년 전 나는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마주하고 있었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우울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나는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고 있는
모든 행복한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싶었지만,
확실히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았다.

예전에는 나도 영을 느꼈지만,
한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리하이의
생명나무의 시현에서처럼 나는 어둠의
안개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 나무조차
볼 수 없는 것 같았다.(니파이전서 8:2-24
참조)

성찬 기도가 시작되자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나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없는지 그분께 여쭙었다.

리하이의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가슴을 꿰뚫는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왜 이걸 전에는
기억하지 못했을까?”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둠의 안개 속을
여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함으로써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게
완전히 의지하도록 하신다. 열쇠는
쇠막대를 꽉 잡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어둠의 안개 속에 있는 나를 보았지만,
희망을 가졌다.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자, 나는 역경이
지나가리라는, 성신에게서 오는 달콤한
확신을 느꼈다.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간증해 주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영을 다시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렸다.

나는 경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쇠막대, 즉 하나님의 말씀(니파이전서
11:25 참조)을 굳게 잡는다면, 어둠의
안개를 벗어나리라는 신앙이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음미할 수 있을 터였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 뒤의 따뜻한 햇빛 같았다.

삶의 도전들과 씨름을 하면서, 나는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쇠막대를 굳게 잡겠다는 나의 약속을
기억했다. 나는 어둠의 안개가 오더라도,
나에게는 내가 갈 길을 보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고, 저편에서 따뜻하게 맞아 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주벤틀라 베사니, 미국 캘리포니아

너는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잠시 들러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두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선교사들은 작은 용판을 세워 놓고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그저 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토론이 끝나갈 무렵, 유타에서 온 한 젊은 선교사가 그의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내 눈을 바라보고, 물문경을 건네주며 그의 간증을 나누었다. 그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나도 그 책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모로나이서 10장 4절을 인용하며 내가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그 책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 주 동안 나는 몇 장을 읽어 보았고, 우리는 내 친구의 집에서 다시 만났다. 우리의 세 번째 토론이 끝난 후에, 유타에서 온 그 선교사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는 꾸준히 물문경을 읽었고, 매일 밤 그 책이 참된지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어느 날 밤 기도를 마친 후에, 나는 침대에 누워 몇 장을 더 읽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네 개의 단순한

단어를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것이 참됨을 안다!”

나는 그 전에는 영의 속삭임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유타에서 온 그 젊은 선교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참됨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교회에 가입했고, 후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성전에서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결혼했다. 우리는

나는 그 책을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말했다. “저는 이 책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후에 유타로 이사 가기 전까지 33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살며 8명의 자녀를 낳았다.

몇 년 전에 막내 딸이 선교 사업을 준비할 때, 나를 가르쳤던 그 젊은 선교사와 연락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물어보았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에 대해 생각해 왔단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그와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아이는 10분 후에 다시 내게 와서는, “이것이 그 사람의 전화 번호예요”라고 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기 위해” 나에게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다음날 그의 이메일에서, 그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내가 그것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랐다.

“제가 어떻게 실망하겠습니까?” 나는 즉시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메일을 더 주고받았고 만나기로 했다. 그가 곧 나를 초대해 주어서 나는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도 소개받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그에게 몰몬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몰몬경 한 권을 가져왔다. 나는 그 책을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말했다: “저는 이 책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로나이서 10장 4절을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한다면, 당신

또한 이것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그는 읽었고, 기도했으며, 회개했다. 곧 그의 18살짜리 아들이 그에게 다시 침례를 주었으며, 나는 그에게 확인을 주는 축복을 누렸다.

나는 내 딸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하도록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두 사람을 45년 후의 재회를 위해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몰몬경의 힘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

헨리 헵크 브라운, 미국 유타

나의 공부는 충분했는가?

나는 십대 시절부터 몰몬경을 충실히 읽었다.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버리고 싶은 밤이라도 그날 몰몬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면 책을 집어 들고 몇 구절이라도 읽고자 했다.

2년 전에 나는 새벽 세미나리에서 구약전서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다른 어떤 경전들보다 구약전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수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데 서너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성경과 후기의 계시를 공부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 버렸기 때문에, 나는 매일 몰몬경 읽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에 몰몬경을 읽고 있었고, 가끔 상호 참조를 할 때에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매일의

복음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느꼈다.

한 학년의 중반인 1월, 우리 스테이크 회장님은 모든 회원들에게 매일 몰몬경을 한 장씩 읽으라는 도전 과제를 주셨다. 세미나리 공부만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그 도전 과제를 받아들여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부터 세미나리 공과를 준비하기 시작하거나, 잘 준비를 하기 전에 매일 몰몬경을 한 장씩 읽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영과 권능이 내 삶에 다시 돌아왔다. 잘되어 가고 있었던 나의 세미나리 공과는 더 훌륭해졌다. 구약전서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그 의미가 더 명확해졌다. 나는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 깊이 공부해 온 결과로 몰몬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몰몬경의 소개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하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몰몬경은 복음의 모든 조각들을 한데 모아 주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강한 간증을 담고 있다. 그것은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내 매일의 삶의 일부에 몰몬경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

앤지 니콜라스, 미국 텍사스



폴 비 파이퍼
장로
칠십인 정원회

계시된 지상 생활의 현실

사 람들은 이 지상에서 저마다 독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상 생활의 목적에 대한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 이 진실을 가르치셨으며, 우리 시대에 재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지상 생활의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충분한 축복과 혜택을 얻고자 한다면, 알려진 이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알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지상에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게 사용하게 되며, 아마 완전히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지상에 와서 필멸의 육신을 얻고 삶을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흥미롭고 안락하며 편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지상 생활의 목적대로 충분히, 완전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은 필멸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에 대해 가르치시며, 지상 생활의 경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현실에서의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수많은 전세의 영들이 그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아 필멸의 육신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¹ 그들은 우리가 충분한 지상 생활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 우리는 일을 통해 영생을 위한 자질과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니”(모세서 4:25; 또한 창세기 3:19 참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금단의 열매를 취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내려진 저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젊고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그가 곧 떨어져 나가 살게 될 필멸의 세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곧 독립하려는 아들을 준비시키는 지상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첫 아들이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이 새로운 현실, 즉 지상 생활의 현실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가 자연 환경과 지상 생활로 인해 곧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던 에덴 동산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여, 지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체 및 정신적 노력과 땀, 인내, 끈기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교훈의
환상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현실을 고수합니다.
그리하면 지상 생활을
통한 우리의 여행은
가치가 있고 완전하며
현실적일 것입니다.



일을 배우는 것, 즉 힘껏 노력하고 생산하며 달성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마음과 육신, 영혼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은 모든 지상 생활의 기반 현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처럼 되어 지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도 일하십니다. 그분들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모세서 1:39)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현실에도 영광은 없습니다.

남성이 일해야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부양한다”는 것은 특별히 남성에게 부여된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로 나옵니다.² 일을 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방법을 아는 남성은 결혼하여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교회의 전 감리 감독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생산적으로 일하면 만족과 자존감을 얻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³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뒤엎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 강조하신 것과 반대로, 대적은 오늘날 인생의 주된 목표가 일을 피하는 것이라고 납득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직업과, 노력 없이 높은 수익을 받는 투자 또는 재정적 전략, 그리고 돈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받을 프로그램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어떤 이들은 값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일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일하고 예산을 세우며, 돈을 쓰기 전에 저축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얻을 것을 위해 일을 해야 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부채를 피”하라고 권고하십니다.⁴

이 세대에 대적이 사용하는 또 다른 사악한 전략은 일하고 성취하려는 남성의 본능적인 야망을 의미 없는 활동에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청년에게 경쟁하고 성취하려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 야망의 의도에 따라 가족을 위한 충실한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을 때, 이 야망으로 끈기와 단련, 일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학업이나 운동, 다른 노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야망을 교활하게 가로막고, 시간과 야망을 낭비하는 가상의 비디오 게임에 집중시키며, 중독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비디오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상의 일이 현실의 일에 따르는 만족감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일이란 가치 있는 지식을 성취하거나, 필요한 노동을 하며, 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끈기, 인내, 절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상 생활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 생애에서 완전한 잠재력과 행복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영생을 위한 자질과 특성을 발달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 영원한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4:33~35, 37~39)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가 모든 것, 즉 충만함, 그분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31:2)

영원한 결혼과 더불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도록 계획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오직 가족, 즉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서로에게 인봉된 남성과 여성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권의 완전한 축복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받든지, 아니면 둘 다 받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서, 주님께서는 **얼다**와 **받아들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성임하다**라는 동사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모두의 축복과 권능을 얻고 받아들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부부가 주님의 집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과 같은 특징과 속성을 발전시키는 가정 생활에서 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즉,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굳건한 지조로 사랑하고 서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속되는 가운데 그 축복이 머물게 됩니다.

충만함, 신권, 가족, 서로 관련된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영원한 결혼이라는 현실로 요약됩니다. 영원한 결혼을 지상에서의 삶의 현실로 만들고자 우리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면, 지상에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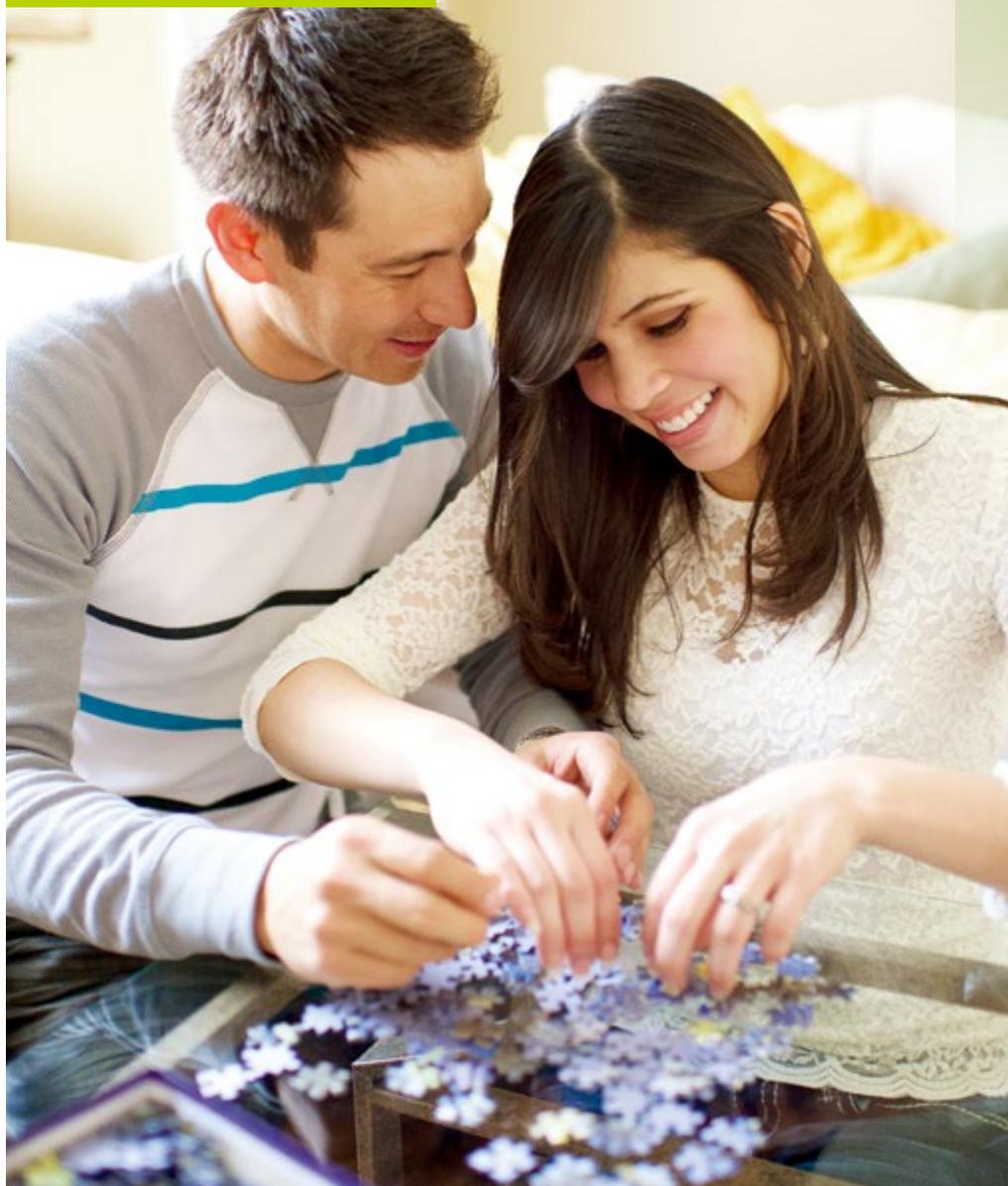
영원한 사기꾼인 사탄은 오늘날 지상 생활의 현실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마음에서 결혼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파괴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일부 사람들에게 납득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도덕적인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결혼의 새로운 법적 정의를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교육과 경제적인 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결혼을 폄하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결혼과 관련된 희생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그 두려움으로 얼어버린 많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며 신앙을 행사하거나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 관계를 맺기는 부담스러워 짙어지면서도 이성 교제나 육체 관계를 원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릇된 기대로 가상 세계에 걸려 듭니다.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얻기 위한 열쇠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친밀감을 얻으려는 시도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더 큰 공허감과 갈망, 수치심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일에 중독될 때까지 비생산적인 탐색을 계속합니다.⁵ 그들은 이겨 낼 수 있는 의지를 점차 파괴하는 사이클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선택의지는 여전히 있는데도 버틸 힘이 있다고 믿을 희망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 그물에 걸리면, 가장 숭고한 지상 생활의 현실인 충만함과 기쁨, 즉 영원한 결혼을 놓칠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그물에 걸려 있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린다면 지상 생활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지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결혼과 관련된 거짓된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성공적인 결혼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⁶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이런 특성을 채우도록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충만함, 즉 결혼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받을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상 생활이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조셉 스미스—역사 1:39)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낳는 것이
지상 생활의
중요한 현실임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현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지상에 첫 번째 가족을 만들도록 “축복” 또는 인봉하셨을 때,⁷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창세기 1:28; 모세서 2:28 참조) 결혼과 자녀는 함께합니다. 지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산의 능력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⁸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낳는 것이 지상 생활의 중요한 현실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녀,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 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니라.”(모세서 5:2) 현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했습니다.⁹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시편 127:3)

몇 년 전에, 곧 결혼할 예비 부부 한 쌍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녀에 대한 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인봉될 때 받을 계명 중 하나를 상기시켰고, 이 계명을 주님의 권고에 따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십일조 또는 안식일 준수, 다른 계명과 같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일단 성약을 맺으면 이를 지켜야 하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승인하신 방법으로 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형제는 학사 과정을 1년 남겨 둔 상태였고, 그 자매도 석사 과정이 1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업도 남아 있었고, 미래에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지만 곧바로 가족을 이루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자녀를 갖기는 쉽거나 간단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형제는 직업을 찾아야 했고, 이사해야 했으며, 자매는 학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긴장감 속에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형제는 매일 서둘러 귀가하여 아내가 학위 논문을 쓰고 실습 훈련을 받는 동안 아기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 자매는 아기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번영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경제 불황으로 직업을 잃었을 때, 형제는 실직하지 않고 승진하였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기에, 주택 담보 대출 외에는 빚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빚을 지지 않고 석사 과정 학비를 완전히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부모로서만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계속 배웠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쉽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지만, 지상 생활의 현실적인 축복을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커다란 선물

지상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 선물을 완전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중해야만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육신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 즉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에서 이탈하게 하려 노력합니다.

목적도 목표도 없는 생활을 하지 맙시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는 이 지상 생활의 현실에서 벗어난 채, 시간을 허비했다는 깨달음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을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교훈의 환상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현실을 고수합시다. 그리하면 지상 생활을 통한 우리의 여행은 가치가 있고 완전하며 현실적일 것입니다. ■

2013년 2월 19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The Realities of Mortality"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아브라함서 3:26, 28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일의 축복", *리아호나*, 2009년 12월호, 37쪽.
4. 닐 엘 앤더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리아호나*, 2013년 1월호, 20쪽; 또한 로버트 디 헤일즈,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10쪽 참조.
5.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중독은 인간의 타고난 욕구이며 절대 충족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앞날을



영원한 증식의 약속

"결혼하지 않은 분이나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구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손에 닿지 않는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축복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항상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영원한 증식이라는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증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5쪽.

예비하여 부양하는 자가 됨", 10쪽)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7. Joseph Fielding Smith, *Doctrines of Salvation*, comp. Bruce R. McConkie, 3 vols. (1954-56), 1:115, 2:71 참조.
8.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힘써 앞으로 나아갈 때 얻는 축복

본부 청남 회장단

중 실한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때로 삶이 고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이나 진실되지 못한 친구들,
가족이 겪는 역경 등 어려움은 도처에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성약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인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니파이후서
31:20)는 구절은 더욱 힘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성약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희망과 위안, 평안함을 느끼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시험을 경험했을
때 그는 겨우 열네 살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자, 그를 멸망시키고자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서야 그 힘에서
풀려났고 그런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습다.

나중에,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들려주었을 때, 친구들과 지역
지도자들은 그를 조롱하였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5~17, 21~26) 그러한
핍박은 계속되었고 결국 24년 후에는
그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조셉은 희망을 품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힘써 앞으로
나아가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옳은 일을 하고자



스티븐 더블유 오웬, 회장 (중앙); 더글라스 디
홈스, 제1보좌 (왼쪽); 엠 조셉 브로, 제2보좌
(오른쪽)



● 침례



● 성전



신앙을 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대로 사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십시오].” 신권의 지도를 따라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십시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성약을 맺고 지키며 힘써 앞으로 나아가면,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

앞으로 나아감

본부 청년 회장단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 이를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16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니파이후서 31장 20절이며, 이

하나의 구절에서 여러분은 삶의 방향에 관한 일곱 가지 조언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향, 행동, 태도, 배움**,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에 약속된 보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힘써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저항하는 어떤 힘에 맞서 진정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에워싼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에 상반되므로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셨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그분께 충실하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며”(요한복음 15:4참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굳건한 것이며, 축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회장 (중앙); 캐럴 에프 맥롱키, 제1보좌 (왼쪽); 닐 에프 메리엇, 제2보좌 (오른쪽)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이해하고 느끼면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도 커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할** 때, 즉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삶의 목적의식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사히 적용할 때 이러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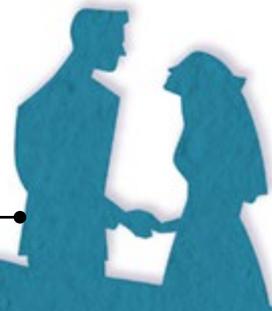
그리고 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 말이 고리타분하고 뻔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인내하다**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을 계속 한다는 뜻이며,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여정에서 착실히 남아 있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참되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는 니파이후서 31장 20절을 통해 그분에게 돌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을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명하시는 일을 하도록 언제나 방편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

신권

● 성전 엔다우먼트

● 성전 결혼



니파이후서 31:20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며 굳건하게 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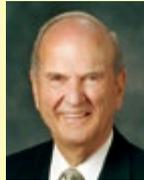


끝까지 견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시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지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주의 힘을 의지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7쪽.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마음껏 먹는 것은 맛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경전을 기쁜 마음으로 탐구하고 충실한 순종의 정신으로 연구할 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때 ... 성품의 일부가 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경전의 안내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

“허약한 소망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밝은 소망'은 비전을 가진 개인을 만들어 냅니다.

그들의 광채는 눈에 띄이며, 그것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 때때로 외부의 빛이 전혀 없는 흑암 중에서도 이 내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희망의 밝은 빛”,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5쪽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영생을 약속하셨다. 다음은 그 일이 언급된 경전 구절이다.

- 요한복음 3:15; 6:54
- 모로나이서 7:47
- 교리와 성약 5:22; 101:38; 133:62
- 모세서 6:59

20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은 두 가지 큰 계명을 모두 포함한다.(마태복음 22:37~40 참조)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는 자애 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모로나이서 7:47 참조)

힘써 앞으로 나아가라

영생을 향한 길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리하이의 생명나무의 시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읽는다.(니파이전서 8:30 참조) 경전에 나오는 다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

굳건함이란 움직이지 않고 확고하게 선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이란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으며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니파이후서 31:20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배움:

폭넓게 공부함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는가? 또는 그분은 왜 지난번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열쇠 찾는 일을 도와주셨는가?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을 잘 아시는가? 혹은 그분은 어떻게 여러분과 이야기하시는가?

다행히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는 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경건 공부를 폭넓게 시작할 기회이다. 수십억의 영의 자녀를 가지신 온 인류의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은 그런 공부에서 정확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폭넓게 공부를 시작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이 순서도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다.



일요일 공과
.....
이날 주제:
.....
이번 신회

매일 도표에 있는 질문 중 한 개를 고른다. 순서를 따라가면서 질문에 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본다. ■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마태복음 7:9~11
요한 1서 1:5.
이디서 3:12



그분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그분과 단 둘이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용히 개인 기도와 경전 연구에 집중하고 늘 중요한 성전 주전시를 소지하기에 합당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매우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시편에 있는 권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기만이 있어 내가 하나님 뒀을 알지아다”[시편 46:10].”

다미터 에핀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부좌, “가장 중요한 것들”, 라이프나, 2010년 11월호, 21쪽.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는가?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었는가? 시편이나 경전 안내서에서 그 단어들을 찾아본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같으면서 또 다른가?

요한복음 3:16, 35.

요한복음 17:20~23.

물론서 7:5~7

여러분이 배운 것에 대해 기정의 밤 공과를 준비하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6~9.
요한 1서 4:7.
엡사서 30:44
골리외 성약 132:22~24.

경전에서 찾은 핵심 단어를 LDS.org에서 검색한다. 그 주제로 된 비디오를 보려면 lds.org/ media-library에 접속한다.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아실까?

시무엘상 16:7

시편 82:6

누가복음 12:6~7

골리와 성약 93:23

각 경전 구절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다섯 단어 이내로 요약해 본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골리와 성약 1:38
골리와 성약 8:2~3
골리와 성약 9:8~9.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여러분이 배운 것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신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이 있는가? 순서도에 있는 질문이 끝나면, 다른 질문을 쓰고 다음 경전 공부에 사용한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배우려면 경전 안에서, 신앙에 충실함, 그리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자료를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모로나이,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한 공과

몰몬경에서 배운 이 교훈은 내가 결코 영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었다.

루이자 호

내가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나는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세미나리 3년차에 들어섰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세미나리 교사가 바뀌었다. 바로 우리 엄마였다.

내가 우리 엄마의 유일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말했었던가? 내가 다니게 될 학교가 우리 집에서 기차로 한 시간을 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내가 학교에 제시간에 갈 수 있도록 새벽 세미나리를 집에서 가르치기로 했다. 엄마가 나를 매일 가르친다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 나는 엄마에게 완전히 집중해 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특히 새벽 5:30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몰몬경을 공부할 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지자인 모로나이에 대해 공부할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왜 모로나이는 혼자였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같이 지낼 누군가를 보내 주지



가정: 복음을 배우는 워크숍

“우리가 빛과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가장 추구하는 한 장소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 가족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도록 돕고자 주님께서 지상에 마련해 주신 방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영적으로 강하게 돕는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에게 왔습니다.”

“굳건하고 영원한 가족과 영으로 가득 찬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은 서로 다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쥬얼 에이 에스플린, 본부 조동회 회장단 제 1보좌, “우리의 가정을 빛과 진리로 채웁시다.” *라이프나*, 2015년 5월호, 8쪽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제안



영의 속삭임을 기록한다.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읽고 난 후, 또는 가정의 밤에 참여한 후의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 보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미나리, 교회, 개인 경전 공부, 또는 일상에서의 생각들로부터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눈다.** 다른 사람을 강화하는 통찰력을 나눈다.



가정의 밤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명하여 부탁하거나, 또는 가족이 다같이 연차 대회 말씀이나 경전의 한 장을 읽어 보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가정의 밤 시간에 함께 토론해 본다.



일상 생활에서 배운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정해 볼 수 있다.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가? 여러분의 성약을 지키기 위한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어떤 경전 구절들이
복음을 배우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가?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언 2:2

“진리의 성령이 ...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13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앨마서 37:35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교리와 성약 88:118

않으셨을까? 그는 왜 주님께서 물몬경을 완성하라고 홀로 남겨 두셨을 때 불평하지 않았을까?

우리 엄마는 모로나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몬경을 끝마치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그와 함께 계셨다. 나는 모로나이가 그를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그의 걸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이제 언제라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신이 함께하시므로, 영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특별한 공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과 간증에 영향을 주었다. 집에서 세미나리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었지만, 지금은 우리 엄마와 함께 특별한 배움의 경험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다. ■

글쓴이는 싱가포르에 산다.

우리들 공간



청녀 메달을 받음

나는 청녀 표창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나는 자신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지켰고 자부심을 가지고 메달을 달 수 있다고 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잠언 31:10).

청녀 조직은 정말 멋지다. 그 조직은 청녀들이 발전하도록 돕고,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준비시킨다. 나는 이 조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린다. 이제 메달을 뒀으므로, 나는 내 삶을 위해 세운 목표들 중의 하나를 완수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카테리네 모레노, 베네수엘라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어머니와 언니의 도움으로, 우리 스테이크에서 열리는 상호부조회 운동회를 위해 이 깃발을 그렸다. 어머니가 나를 상호부조회 회장님께 나를 추천하셨고, 그분은 깃발을 만들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셨다. 나는 그분들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노력을 통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에서 고결함을 찾고, 여성이 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나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도 성장시킨다는 것을 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분께 받은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달란트의 비유의 가르침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재능을 잃게 된다.(마태복음 25:24~29참조).

그러나 우리가 선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바네사 파미탄,
필리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안에 있는 활동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온 마음, 헌신, 힘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신앙을 요구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진실로 영감받은 자료이다.

청남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담긴 목표들, 곧 영적, 현세적, 신체적,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목표들을 완수함으로써 남은 인생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배운다.

이러한 목표들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는 것은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나의 간증을 키웠으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해 더 잘 준비했다. 이 놀랍고도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언젠가 미래의 내 아이들에게 내가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흐뭇하다.

조나단 아르케이오, 베네수엘라



선교 사업은 기대 이상이었다.

청남이었을 때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선교 임지로 들어가자,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내게 하라신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누군가를 교회에 참석하도록 돕는 일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누군가가 회복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럼요, 들어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짜릿한지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다. 회개를 선포할 때 오는 권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전에는 몰랐다. 그런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 적도 없었다. 경전 공부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적도 결코 없었다.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눈물짓게 된 적도 전에는 전혀 없었다. “장로님들,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마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쓸쓸한지 전에는 결코 생각지 못했다. 그 전에는 발에 엄지 손가락만한 물질이 잡힌 적도 없었다.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것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 그렇게 큰 책임감을 느껴 본 적도 없었다.

그리고 전임 선교사 때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간 적은 없었다.

나우엘 카브라네스, 페루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감은 무언가가 여러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삶에서 앞으로 간다는 것은, 유혹들을 옆으로 제쳐놓고, 장애물을 통과해 가며, 의심과 두려움을 여러분의 발밑에 내려놓으며, 신앙, 사랑, 소망과 같은 신성한 자질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니파이는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니파이후서 31:20)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분이 그분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장 큰 도전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제쳐두고, 정확하게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니파이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굳건함을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앞에 기쁜 소망의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평화를 찾습니다. 제자의 신분은 우리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목적을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한 목적의 중심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됩니다.

니파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신의 은사로써,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니파이후서 32:2~5 참조) 저는 이 음성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78:18)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과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더 큰 확신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성신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보여 주고, 말해 줄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2:5 참조) ■

2013년 12월 14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함.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했습니까?

저는 구주께서 말씀하신 이 두 단어 때문에 마가복음 4:39을 가장 좋아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폭풍우의 절망 속에서 그들 자신을 잃어버렸듯이, 저도 극복하려는 소망이 없이 비참함 속에 제 자신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그렇게 간단한 두 단어를 말씀하심으로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다는 것을 저에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이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다면, 제가 그분께 저의 신뢰를 보일 때, 그분은 매일의 삶에서의 폭풍들도 잠재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네카 더블유, 18세, 미국 유타

해답을 찾아서

제 친구가
다른 사람들의
놀림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절을 베풀어 그 친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도, (2) 결코 여러분의 간증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고 느끼게 되어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조롱과 조소란 추한 것이며, 존경받을 만하고 친구로 여길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여러분의 모범입니다. 리하이의 꿈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자들의 조롱을 받았으나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니파이전서 8:33) 사람들처럼 되십시오. 친구가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 품위와 존경, 쾌활함을 지니고 대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그는 자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만일 아직도 그 친구의 마음에 간증의 씨앗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인 모범과 여러분이 하는 간증이 그가 영을 느끼고, 한때 그가 알던 것을 기억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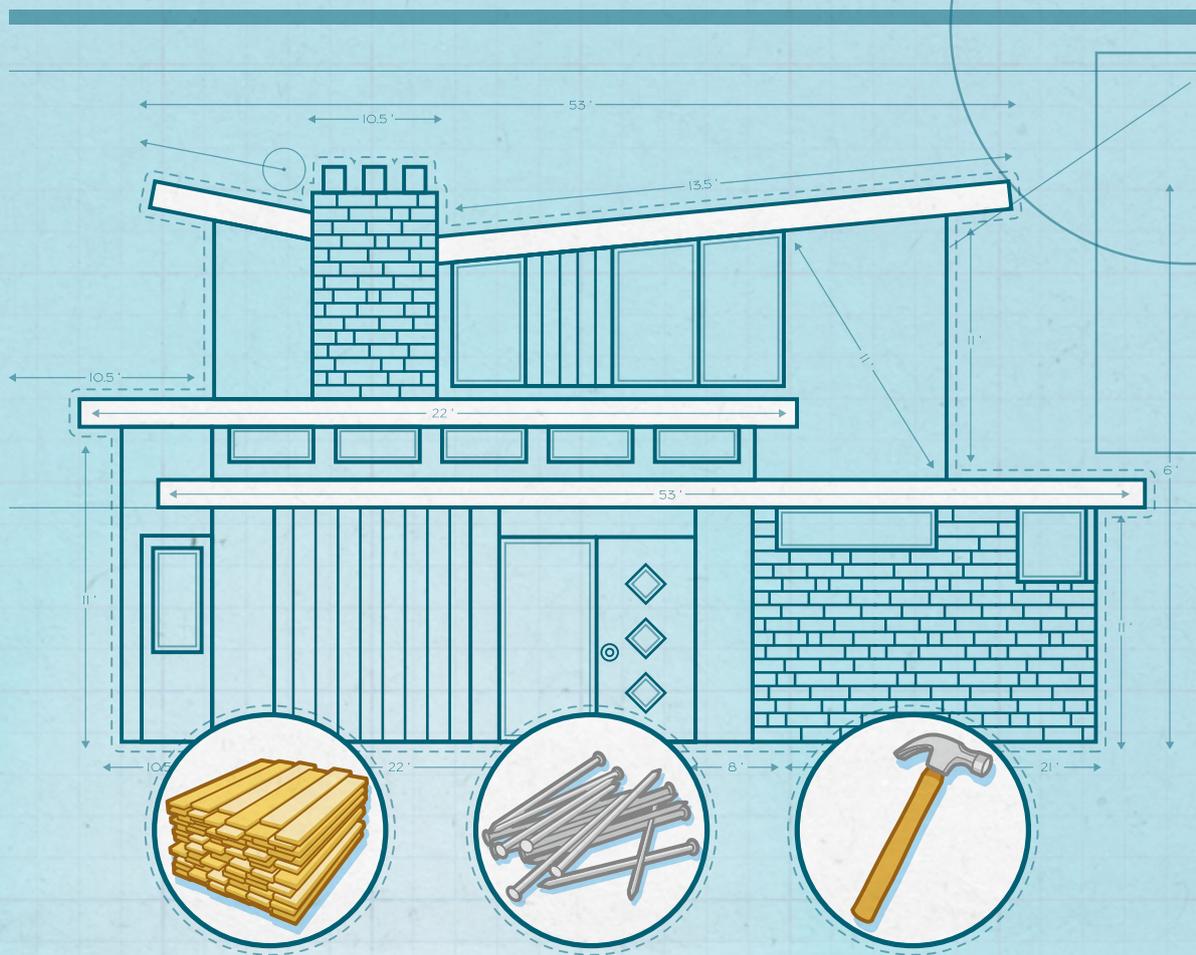
도박에 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복권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도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07년], 21.1.19 참조) 도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박은 잘못된 일입니다. ... 도박은 중독성이 있어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며 삶을 망치고 가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11], 41쪽) ■

하나님께서서 여러분의 건축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덕슨
교회 집지



여러분은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조립 설명서를 용감무쌍하게 제쳐 두든, 좋은 소리가 나는 대로 두드려 가며 혼자 악기를 배우든, 시행 착오를 통해 배우게 되는 능력에는 그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대부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 어떤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직접 지어야 하며, 모든 원자재가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거대한 자재 더미가 그러지십니까? 목재며 못이며 파이프에 전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근사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여전히 직접 경험하며 집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대부분의 자재와 도구의 사용법을 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도 이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인생을 건설하는 데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건축가는 없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해력을 넓혀 주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써 더욱 강한 간증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2011, 43쪽)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 계획에 그분을 포함할 때, 우리는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선택했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찾은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폭력을 멈춤

mormonchannel.org에 있는 비디오 시리즈에서, 부바라는 한 청년이 재앙으로 치달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¹ 부바는 고작 3살일 때 아버지가 살해당한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바는 그가 항상 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선택하며 성장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과 맞서는 모든 사람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되자 머지않아 자기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인생의 위험한 교차로에서 부바는 애정 어린 친절과 선함을 보여 주는 후기 성도 가족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연민과 사랑을 보여 주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부바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바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에는 전혀 느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부바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바는 예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인생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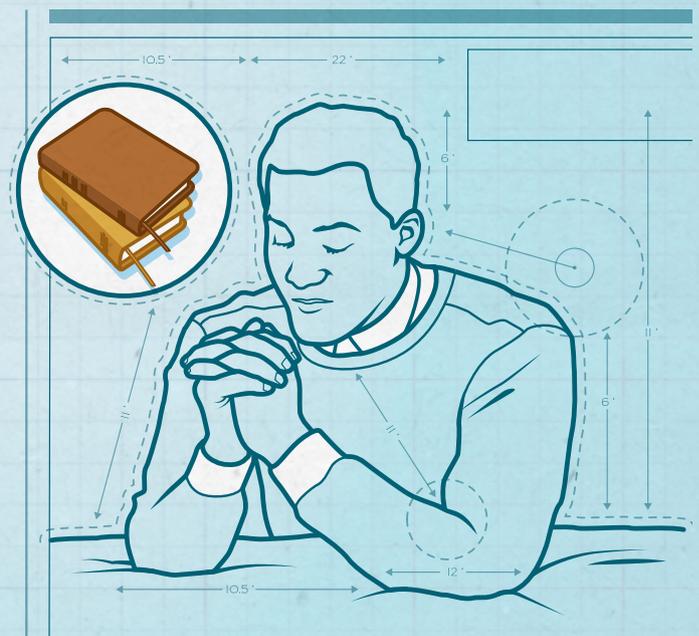
인간입니다. 이제 저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명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부바는 빛과 신앙,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저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²

방향을 바꿈

십이사도 정원회 및 제일회장단 일원이었던 휴 비브라운(1883~1975) 회장은 하나님의 힘으로 훨씬 나은 삶을 개척한 인생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캐나다 군대에서 복무 중이던 휴 회장은 장군 승진을 앞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 계획에 그분을 포함할 때,
우리는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10년 동안 노력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상부에서 언급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휴 회장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고 영혼은 비통했습니다. ... 막사에 도착했을 때, ... 침대 위에 모자를 내던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는 하늘을 향해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모두 다 했다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쓰라린 고통만이 남았습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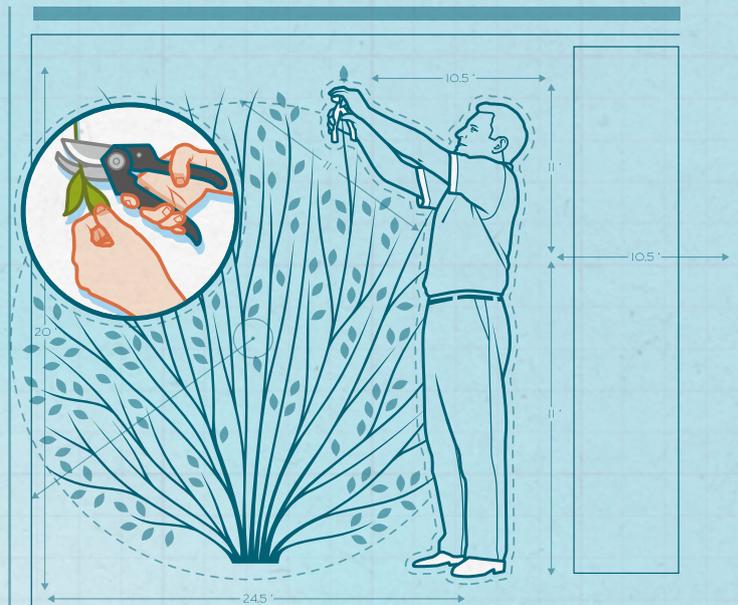
순간, 휴 회장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까치밤나무 덩불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 방치된 농장을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고서는 이 덩불에서 열매는 열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이 덩불은 그저 계속 높이 자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휴 회장은 덩불을 과감하게 쳐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린 덩불 가지마다 수액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나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난 이곳의 정원사야.”라고 휴 회장은 까치밤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알고 있던 휴 회장이 보기에 그것은 절대 그늘을 제공할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휴 회장이 승진에서 제외된 분노와 싸우고 있을 때, 그 경험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제 자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난 이 곳의 정원사란다. 난 네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할지 알고 있단다.’ 쓰라린 고통이 저의 영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저의 무례함과 불평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

“... 그리고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정원사님, 고마워요. 저를 낮게 잘라 주셔서요. 절 너무 사랑하셔서 아프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⁴

휴 회장은 결국 장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브라운



“난 이곳의 정원사란다. 난 네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할지 알고 있단다.”

회장을 위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건축가로 삼은 브라운 회장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옥의 자식”이라고 불린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물론경에 나오는 변호사 지에즈롬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엘마서 11:23 참조)

엘마와 앰올레크는 지에즈롬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들과 대적하도록 하여 변호사로서 돈을 벌려 한 곳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지에즈롬은 질문으로 엘마와 앰올레크를 속이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이에 대답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엘마와 앰올레크는 영을 통해 지에즈롬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엘마서 11~12장 참조)

대화가 계속될수록, 지에즈롬은 망연자실하여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자기 죄와, 백성을 어긋나게 이끌려고 했던 자기 행동에 대해 심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가 끼친 피해를 되돌리고자, “보라, 나에게 죄가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앨마서 14:7)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에즈롬을 도시에서 추방했습니다. 지에즈롬은 앨마와 앰올레크를 대적하여 설교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고 잘못 생각하였고, 그 두려움을 포함하여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으로 “뜨거운 열로 타 들어가” 병들어 누웠습니다.(앨마서 15:3)

그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세운 구조물은 그 기초부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에즈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앨마와 앰올레크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에즈롬은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와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는 자기를 낮게 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지에즈롬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침례를 받고 그날 이후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앨마서 15:1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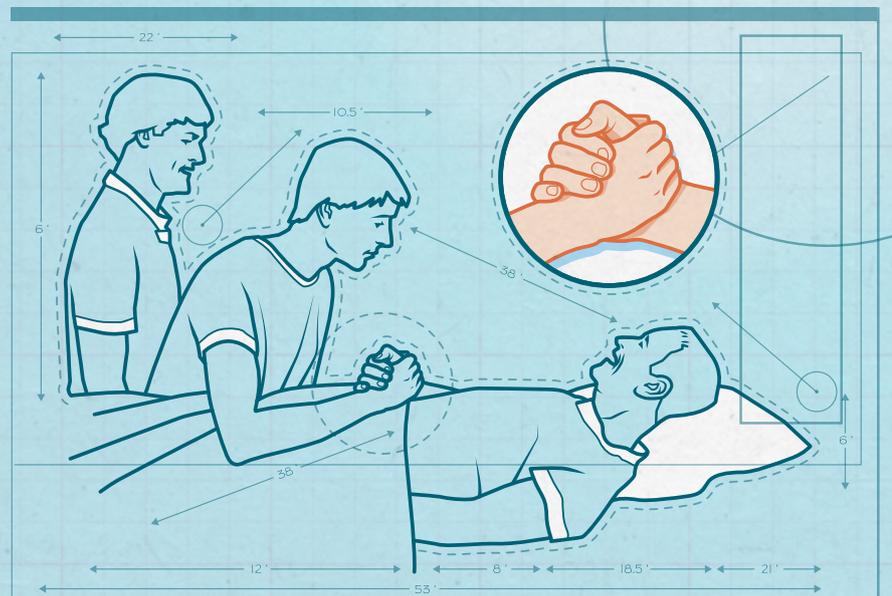
하나님을 자신의 건축가로 삼은 지에즈롬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노련한 건축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인생을 혼자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에 한계란 없습니다. ■

주

1. "His Grace" 비디오 시리즈, mormonchannel.org.
2. "From Gang Member to 'Good Man'"(비디오), mormonchannel.org.
3. 휴 비 브라운, "까치밥나무", 리야호나, 2002년 3월호, 22쪽; *New Era*, Jan. 1973, 15.
4. 휴 비 브라운, "까치밥나무", 리야호나, 22, 24쪽; *New Era*, 14, 15.
5. Neal A. Maxwell, "Response to a Call," *Ensign*, May 1974, 112.



현세인가? 영원인가?

이생에서 선택의지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맥과 인기, 친구는 이생에서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께서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중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중국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⁵

우리는 이생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만약 그 장막을 벗어 버린다면, 모든 관점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분의 강력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돈과 힘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이생에서 우리는 짧은 기간을 보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사벨라 에이, 19세, 멕시코

에티오피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에이미 제인 레빗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제 이름은 치온입니다!

저는 동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는 축구와 독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복음대로
살며 친구들에게 말씀을 나눔으로써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간증을 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온
것은 여덟 살 때였어요.
저는 물몬경을
읽고,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렸어요. 영이
저에게 교회가
참되다고 알려
주었고, 저는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저는
복음이 있어서 행복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치온의 조언

- 스스로 간증을 얻으세요.
경전을 읽고 기도하세요.
- 간증을 나누고 친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 보세요.
-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세요.

가족 돕기

우리 가족은 보통 걸어서 교회에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남동생이 피곤해하면, 오빠나 제가 동생을 안고 가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돕습니다.



나의 교회 부름

교회 모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성찬 모임입니다. 제가 지휘를 해요. 저는 복음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물문경 이야기”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기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회복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 묻곤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았어요.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부모님이 화가 나셨대요. 언젠가 그분들이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의 경험이나 사진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 (“Submit an Article”을 클릭함)으로 보내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나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됨이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됨”이란 매일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 간증하기를 바라시지요. 전 세계에 사는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회복된 복음에 대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 읽게 될 거예요

머리사 위디슨과 소냐 케나야타
실화에 근거함

조셉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직 두 장이나 더 읽어야 하거든요.
“괜찮니?”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전 읽는 게 좋아요.” 하고 조셉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리게
읽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지요?”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매일 몰문경을
1장씩 읽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읽는
것이 나아질 거야.”

조셉은 그렇게 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긴
단어들은 한 자 한 자 소리 내어 읽어
가야 했어요. 그래도 조셉은 매일
매일 꾸준히 읽었어요. 조셉은 이내
한 장 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2주가 지나갔습니다. 조셉의
책갈피가 니파이전서에서
니파이후서로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야곱서예요!





삽화: 케이티 맥디

어느 날 저녁, 가정의 밤 시간에 조셉이 공과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조셉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몰몬경 이야기** 책을 찾았지요. 그 책에는 이야기와 그림이 실려 있었어요. 조셉은 꼭 맞는 이야기를 찾을 때까지 책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읽어 주었습니다. 조셉은 **배와** 같은 짧은 단어를 읽었어요. 그리고 **제이라해물라와** 같은 긴 단어도 읽었어요. 선지자들은 아주 오래 전에 이 이야기들을 기록했어요. 그 단어들을 읽는 일은 쉬웠어요.

이야기를 끝내고 보니, 엄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조셉이 물었어요.

엄마는 “그래.” 하고 대답하셨지요. “엄마가 기쁘구나. 우리 조셉이 이토록 열심히 노력했다니 말이야.”

조셉의 입가에 큰 웃음이 번졌습니다.

“매일 몰몬경을 읽고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조셉은 엄마께 몰몬경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책갈피가 얼마서에 있네요!

언젠가 조셉의 책갈피가 몰몬경의 마지막 장에 있을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와 볼리비아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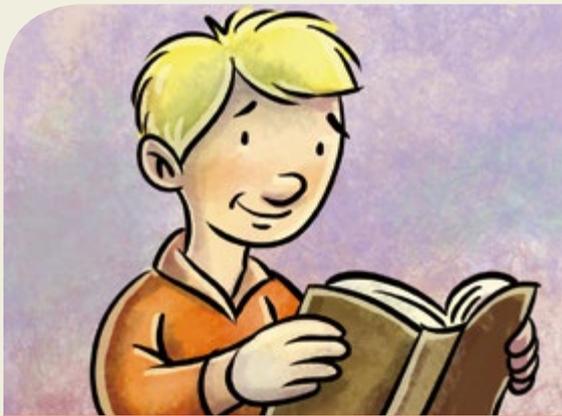


로버트 디 헤일츠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떻게 나만의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간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배울 때 자라납니다.



경전 읽기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가르침과 간증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면 성신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치 흥 (샘) 왕 장로
칠십인 정원회

월포드의 금식 헌금



어느 날 저는 큰 아들인 월포드가 십일조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그 애는 아마 다섯 살쯤이었을 것입니다. 월포드에게는 번 돈이 한 푼도 없었으므로, 저는 그 아이가 왜 십일조를 내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자, 그는 사실 금식 헌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포드에게는 자기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금식 헌금을 내는 일에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절한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기로 했는지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월포드가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필요가 없지만요.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는 자기 돈이 사람들을 도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 단순한 경험은 저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참으로 영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타고 났다는 것입니다. 월포드는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에는 유용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희생하려 했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아들은 그의 모범으로 저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가진 것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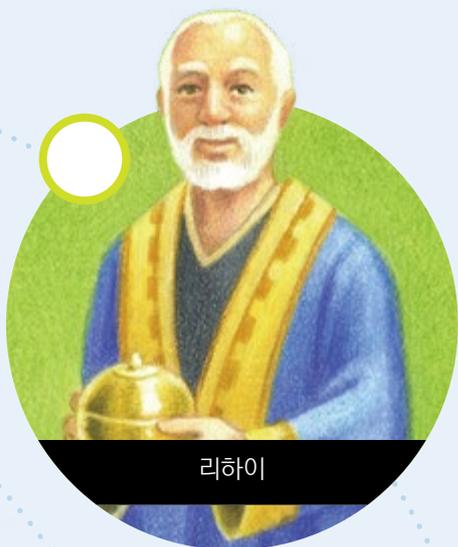
몰몬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가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고 니파이가 배를 짓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리하이, 니파이, 아빈아다이, 사무엘 그리고 몰몬 같은 선지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분들 중의 몇 분은 직접 그분을 보기도 했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책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는 것을 도우기 위해서입니다. ■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몰몬경을 읽을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 달 몰몬경의 영웅 카드와 읽기 도전 과제를 74~75쪽에서 찾아보세요.

“제1장: 어떻게 우리가 몰몬경을 갖게 되었나”를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시청하세요. “몰몬경”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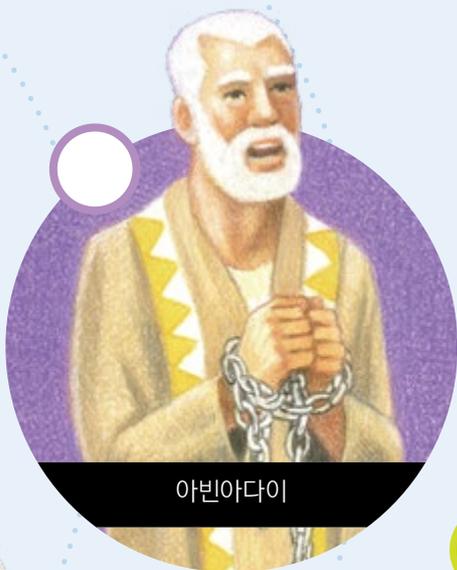
리하이

돌아가며 다음 구절들을 읽으세요. 몰몬경의 선지자와 일치하는 경전의 번호를 씁니다. 아래에 있는 답과 확인합니다.

1. 이더서 12:39, 41.
2. 니파이전서 1:5, 9.
3. 니파이전서 11:26~27
4. 모사이야서 16:8~9
5. 엘마서 6:8
6. 모로나이서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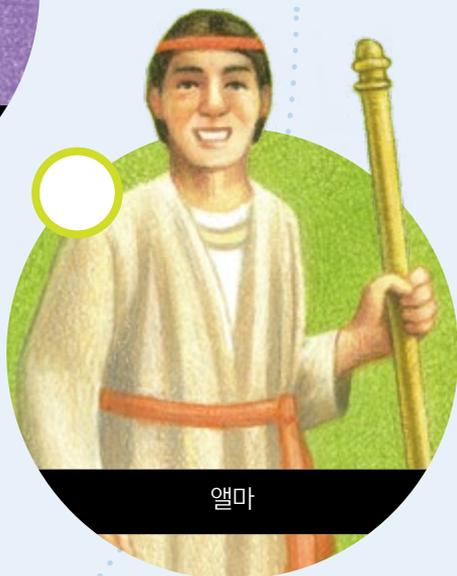
모로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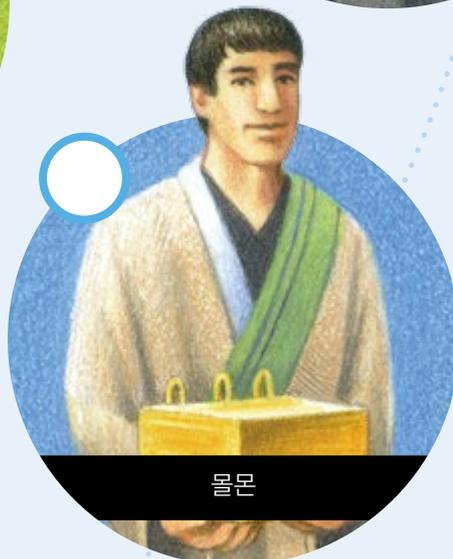
아빈아다이



니파이



엘마



몰몬

다음에 대해 써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몬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의 사랑을 보이셨나요?

몰몬 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18:1, 19:1, 20:1, 21:1, 22:1, 23:1, 24:1, 25:1, 26:1, 27:1, 28:1, 29:1, 30:1, 31:1, 32:1, 33:1, 34:1, 35:1, 36:1, 37:1, 38:1, 39:1, 40:1, 41:1, 42:1, 43:1, 44:1, 45:1, 46:1, 47:1, 48:1, 49:1, 50:1, 51:1, 52:1, 53:1, 54:1, 55:1, 56:1, 57:1, 58:1, 59:1, 60:1, 61:1, 62:1, 63:1, 64:1, 65:1, 66:1, 67:1, 68:1, 69:1, 70:1, 71:1, 72:1, 73:1, 74:1, 75:1, 76:1, 77:1, 78:1, 79:1, 80:1, 81:1, 82:1, 83:1, 84:1, 85:1, 86:1, 87:1, 88:1, 89:1, 90:1, 91:1, 92:1, 93:1, 94:1, 95:1, 96:1, 97:1, 98:1, 99:1, 100:1

니파이는 순종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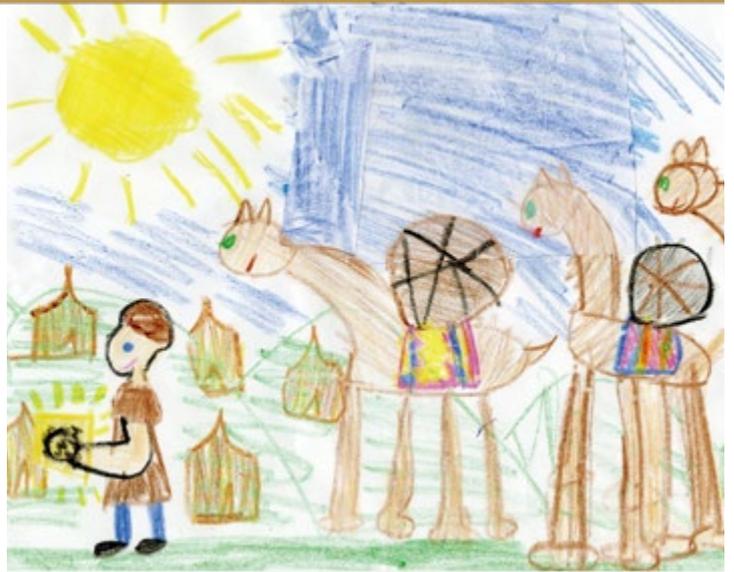
니파이는 어렵고 무서운 일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고, 사악한 사람에게서 낫쇠판을 가져와야 했으며, 광야에서 가족들이 살아남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니파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어떻게 니파이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엄마와 저는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니파이에 대해 읽어 보니, 니파이가 항상 순종해서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니파이처럼 되고 싶어요. 이제는 엄마가 “쓰레기 좀

버려 줄래?”라고 물어보시면, “네, 엄마!”라고 대답한답니다.

하이디 엠, 10세, 한국 경상도



앨런 비, 8세, 미국 유타

상화: 제러드 배스트랜드

이 도전 카드를 자르고 접어서 간직하세요!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외운다.
-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니파이처럼 순종한다!
-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물문경 비디오 2~9편을 시청한다.
- 나의 도전 과제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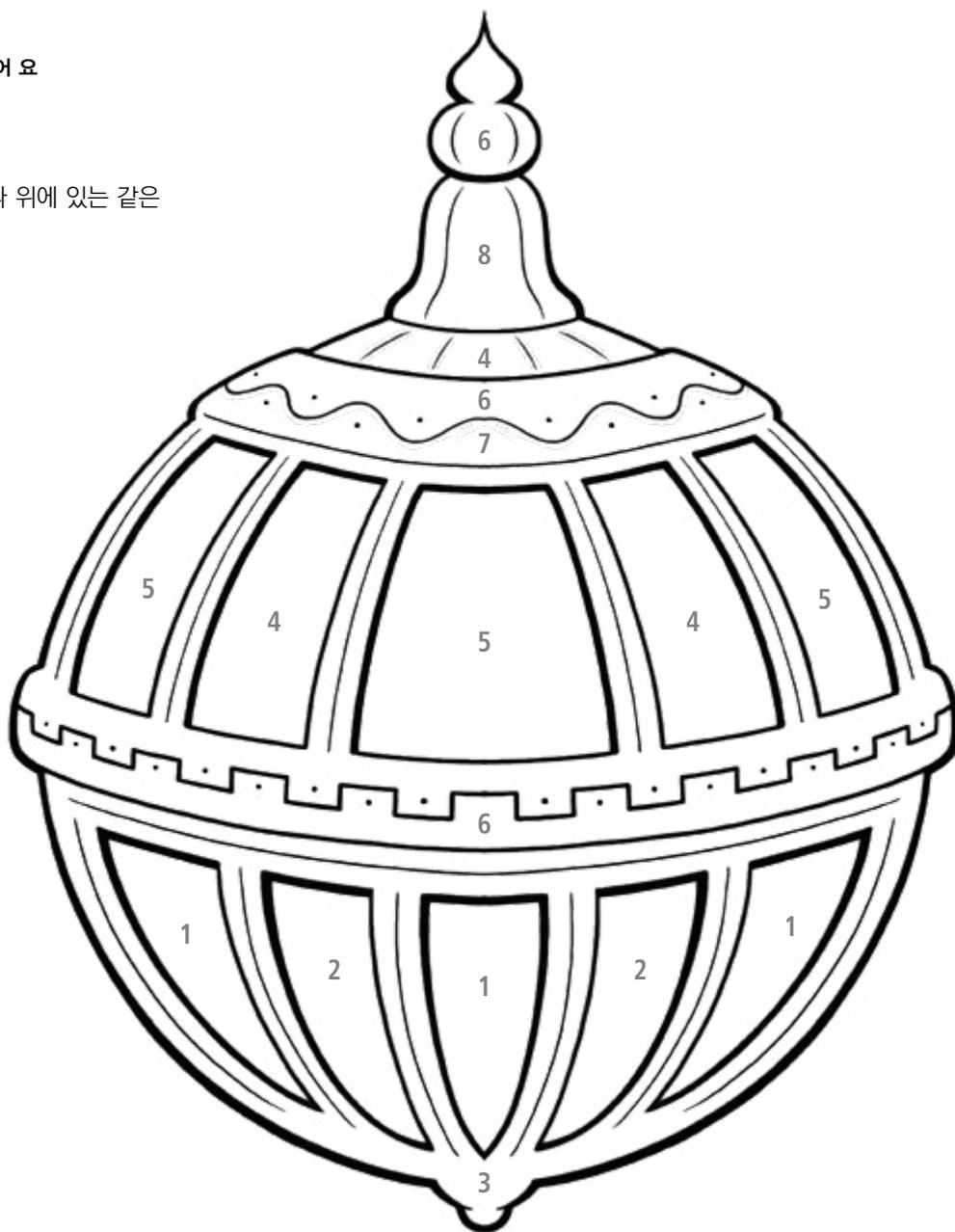
니 파 이

나는 물문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번 달의 경전 구절

경전 구절을 읽은 후, 리아호나 위에 있는 같은 번호에 색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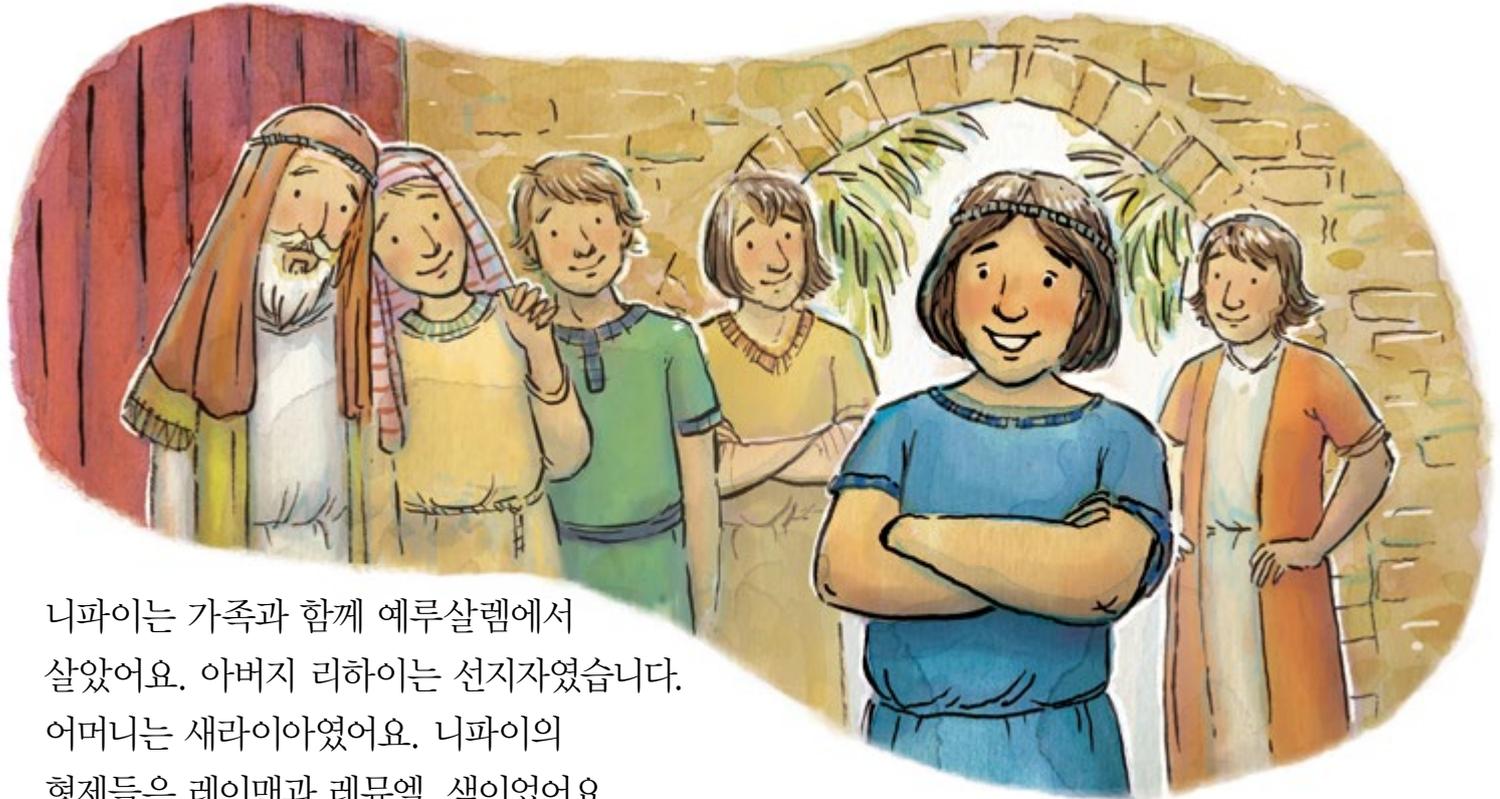
- 1 니파이전서 1:1~10
- 2 니파이전서 2:1~7, 16~20
- 3 니파이전서 3:1~9
- 4 니파이전서 3:22~31, 4:1
- 5 니파이전서 4:4~35
- 6 니파이전서 8:2, 5~18
- 7 니파이전서 8:19~33
- 8 니파이전서 16: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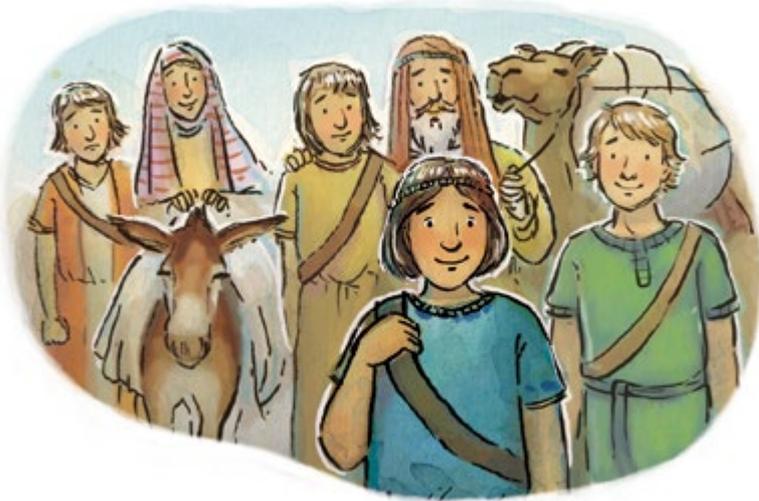
리아호나

니 파이의 가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리아호나라고 부르는 특별한 지시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우면, 리아호나는 그들이 어디로 여행할지 또 어디에서 식량을 구할지도 알려 주었습니다. 리아호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76~78쪽을 읽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호에서 다른 읽기 도전 과제를 기대하세요! ■

광야에서의 여행



니파이는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리하이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라이아였어요. 니파이의 형제들은 레이맨과 레뮤엘, 샘이었어요.



니파이의 아버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가족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야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두고 떠나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니파이의 가족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니파이의 가족은 광야로 들어섰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에게 경전을 가지러 다시 도시로 돌아가라 이르셨어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형제들은 하기 싫어했지만, 니파이는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어요. 니파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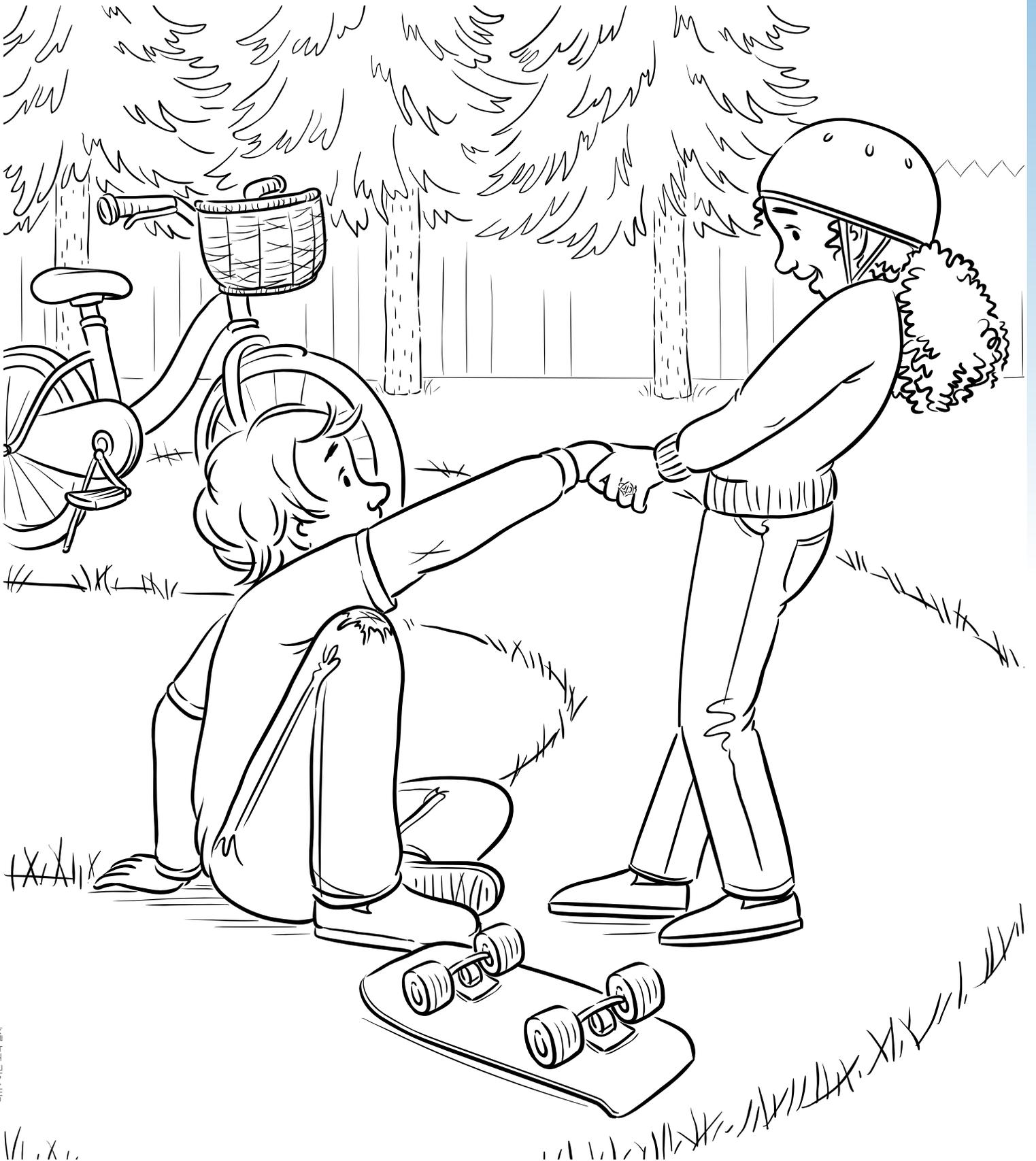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는 니파이의 가족에게 특별한 나침반을 주셨어요. 그것은 리아호나라고 해요. 니파이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리아호나가 광야에서 이동할 길을 보여 주었어요. 리아호나는 니파이에게 어디로 가야 가족이 먹을 음식을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었어요.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면 우리도 니파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임스 이 탈매지
(1862~1933)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비유: 야간 고속 열차

그을리고 기름 때 묻은 기관사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중에, 저는 어느
대 지질학반에서 미리 계획한 현장
답사반에 들어갔습니다. ...

특정한 과제로 인해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 그런데, 배정된
조사 시간이 다 되어 갈 즈음에, 우리는
세찬 바람에 휩싸였고 곧 이어 심한 눈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계절에 맞지도
않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우리는 언덕 위에서
눈에 갇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그날 밤 집에
갈수 있는 기차를 타려고 희망했던 작은
역으로부터 수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길고 험한 산등성이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야
간신히 기차역에 도착했지만, 폭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

...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기차는 큰 도시들을
연결하는 야간 고속 열차였습니다. ...

한밤중이 훨씬 지나서, 기차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눈을 가르며
도착했습니다. 저의 동료들이 서둘러
승차하는 동안 저는 기관차 기사에게
마음이 끌려 동료들 뒤에 서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 조수는 물을 채우고,
기관사는 엔진 주위를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부품에 기름칠을 하고
조정해 맞추면서 지친 기관차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빠 움직이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같은 밤, 즉 무섭고,
 거칠고, 사나운 밤, 마치 파멸의 힘이
 들판 무대를 휘저어 통제할 수 없는 듯한
 이때, 폭풍이 으르렁거리고 사방으로부터
 위험이 몰려 오는 이 밤, 이 같은 밤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었습니다. ...

그의 대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쑥불쑥 흐트러진 어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엔진 전조등을 보시지요. 저
불빛이 철길 전방 90미터가 넘는 거리를
비추고 있지 않나요? 제가 하는 일은 그
불빛이 닿는 저곳까지 지키는 일이죠.
제가 그곳까지 볼 수 있기에 거기까지는
노반이 열려 있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 이 기관차의 전조등이 언제나
제 앞길을 비추어 주지요!”

그가 기관차 운전석으로 올라가자,
나도 서둘러 첫 번째 객차에 올랐고,
폭신한 의자에 들어앉아, 바깥 어둠 속
거친 황량함과 정반대로, 따뜻함과
편안함에서 오는 더없이 행복한 즐거움
속에서, 그을리고 기름 때 묻은 기관사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깊었습니다. 그 신앙은 위대한
일을 해내며, 용기와 결단력을 주고,
행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

우리는 몇 년 후의 일, 아니 단지
며칠 또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몇 야드 전방 또는 바로
몇 피트 앞에 놓인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듯, 우리의 의무는 분명하고, 우리의
진행 방향은 환합니다. 다음 노정에
이어지는 이 짧은 가시거리는 하나님의
영감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니, 자,
앞으로 나아갑시다! ■

“제 가지 비유-어리석은 별, 야간 고속 열차,
그리고 두 개의 등잔”,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36~41쪽에서 발췌함.

통찰



최근 재한남된 유타 옥든 성전

성전에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전에 참석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을 방문하십시오. 성전 사진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도록 하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계시된 지상 생활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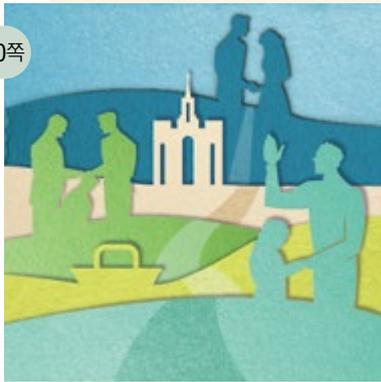
구주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치신 지상 생활의 세 가지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44쪽

청소년

50쪽



2016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이 올해의 주제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니파이후서 31:20)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한다.

어린이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올해, 몰몬경을 읽으며 여러분은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하려고 했던 여러 선지자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72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4 0213281320 4